FEB 1 6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57 1983년 2월 15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uesday, February 15, 1983

4월23일 하버·캐슬 호텔

미인대회 준비 서둘러

집행위원회(14명)구성…운영위원30명 내정

제8회 캐나다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일시장소가 오는 4월23일(토) 토론토·힐튼 하버캐슬·호텔(베이·스트릿 남단 온타리오 호수변)로 결정됨에 따라 주최자인 본 토론토한국일보사는 준비위원회 구성, 연예인 초청, 출전미녀 물색등을 위해 부산히 움직이고 있다.

지금까지 미인대회를 주최해온 토론토한인회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년부터 새 주최자가 된 본사는 지난주 14명의 집행위원회(본사측 3명 포함)를 구성, 1차 회합을 갖고 금년 대회도 작년과 같은 형식으로 호텔에서 한다는 것등을 정했다.

실제 대회를 운영할 집행위원회는 약간명의 자문위원과 한인사회 전반에서 대회를 도울 인사 약30명으로 대회 운영위원을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본사측은 매년 문제가 되는 미인심사위원의 선정을 본사 추천, 집행위 또는 대회운영위 선정형식으로 선출할 방침이다.

또한 미녀들의 나이 제한을 완화, 17세이상의 미혼여성으로 정해 상한선을 제거했으며, 한복이나 야회복 심사중 한가지를 생략, 출전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대회 당일의 심사시간을 절약케 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대회당일 심사시간이 길어 참석자들의 댄스등 사교시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고려, 미녀에 대한 심사는 사전에 충분히 하고 대회때는 가급적 심사시간을 절약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예상 참석인원을 약1천명으로 추산했다.

초청될 연예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 서울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은 5월1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출전희망 미녀들은 신청서를 4월17일까지 본사 도착토록 제출하면 된다.

지방미녀는 아래 연락처에 제출해도 된다.

◉몬트리얼 지역: 정관성 본보 지국장(672-8399, B)845-7151)

◉런던 지역: 강상권 지국장(681-6925, B)432-5931)

◉에드몬톤·캘가리 지역: 유인형(Edmonton 462-2547)

◉오타와 지역: 이태은 지국장(722-6133)

◉밴쿠버 지역: 유설희 지사장(438-6810)

지난 1~7회까지의 캐나다 미스코리아 「진」을 살펴보면 메트로·토론토 출신이 4명, 몬트리얼·밴쿠버·캘가리가 각 1명이었다.

한편 이번 대회를 빛내주기 위해 각계로부터 협찬의뢰가 답지하고 있다. 지난 주말(12일) 현재 상품을 의뢰해 온 업체는 다음과 같다.

(1)세방여행사(사장 유승민)-서울 왕복항공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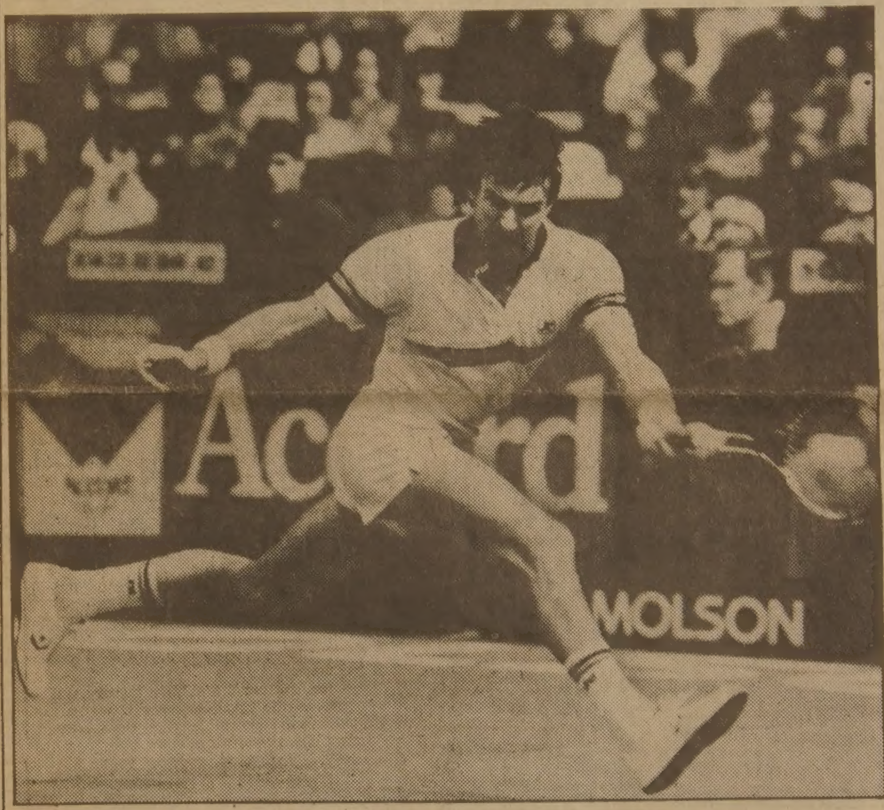
(2)E & J 오토바디(대표 이영두)-$500 약정

(3)영숙보석상(민영숙)-진주목걸이($200 상당)

(4)에코시 가구점(대표 김만구)-가구 1세트

▲집행위원 명단

강공선, 박인순, 이대환, 이장성, 이광민, 장기철, 윤방현, 남지연, 김현옥, 홍기만, 김원동, 본사측 3명(이석현, 송광호, 이춘호) (무순)



◆13일 몰슨 테니스대회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11위인 스페인의 이게라스를 눌러 우승, 상금 10만달러를 탄 지미·코너스. 〈관계기사 2면에〉

캐네디언 3분의1 실직으로 곤란

1월중 갤럽여론조사 결과

캐나다인의 3분의 1이 자신 혹은 자기의 가족중의 일원이 실직으로 곤란을 받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14일 발표된 갤럽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한 캐나다인의 50%가 현재의 불황이 끝나기전 실직으로 인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중 갤럽회사가 18세이상 캐나다인 1,055명을 상대로 실시한 통계조사 결과는 캐나다의 실직자수를 총 1,598,000명으로 집계했다.

전 외국어대 총장

박술음씨 사망

(서울 14일=연합)한국외국어대[illegible] 총장을 지낸 박술음씨가 13일 노환으로 사망했다. 향년 81세.

서울이 고향인 박씨는 1952년 보사부장관을 지낸 것을 제외하고는 일생을 교육에 전념했다.

47년 연세대학교 교수로 학계에 첫 출발을 한 박씨는 66년부터 77년까지 12년간 한국외국어대학 총장을 지냈으며, 그후로는 임종시까지 외국어대학 명예교수로 봉직해 왔다.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가공공장면허소지업체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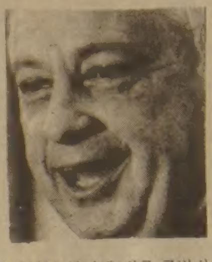
샤론 국방상 사임

무임소장관으로 계속 남아

(예루살렘)에리엘·샤론 이스라엘 국방상은 14일부로 국방상직을 사임, 새 국방상으로는 주미대사인 모쉐·아렌즈가 위촉을 받았으나 14일 현재 승낙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정부는 이날 베이루트의 난민촌 대학살사건을 미리 막지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샤론 국방상을 사임시키라는 대학살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텔아비브 거리에서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샤론을 내각에서 축출시킬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었다.



◆사임한 에리엘·샤론 국방상

—알 림—

항공편 지연으로 모국판 「한국일보」가 도착되지 않아, 오늘은 현지판과 특집판(3개면)을 보내드립니다.

모국판이 도착되는대로 합판으로 실겠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이태리 영화관에 화재

관객 64명 숨져…대부분 10대

(이탈리아 터린)이탈리아 터린시의 영화관에서 불이나 적어도 64명이 숨졌다.

관리들은 사망한 관객의 대부분이 10대들로 이들은 불이나자 출구로 밀어닥치는 바람에 밟혀 죽었다고 밝혔다.

소방관에 의하면 불은 이날 하오 6시30분 1층 메인·로비로 통하는 현관에서 일어나 재빨리 윗층으로 번졌다.

이탈리아 경찰들은 극장내에 출구가 부족했다고 말하고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방화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5천만 보상 요구

일본계 캐네디언 연방정부에

일본계 캐네디언들은 2차 대전중 캐나다가 「브리티쉬·컬럼비아주의 일본인들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고, 강제수용및 노동에 동원한데 대한 보상」으로 5천만달러를 지급해줄 것을 연방정부에 요청했다.

일본계 캐네디언전국협회 보상위원회의 조지·이마이 대변인은 14일 동협회는 연방정부가 이 돈을 지급할 경우 재단을 설립, 코뮤니티의 공동이익과 인권운동등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계 캐네디언 전국협회는 전국 8개소의 일본인 코뮤니티를 총괄하는 모임이며, 현재 캐나다의 일본인수는 4만5천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마이대변인은 보상금으로 우선 2차대전중 캐나다정부가 가한 탄압으로 좌절을 겪고 재산몰수로 경제적 곤란을 받고 있는 일본인 1, 2세들의 양로원을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보상금 지급은 지금까지 지연된 공개사과이면서 동시에 캐나다 역사의 수치스런 한 대목을 종지부 짓는 의미가 된다고 말했다.

일본계 캐네디언의 보상금청구작업은 최근 일본계 미국인들이 미국정부에 보상을 요구한데 뒤이은 것이다.

일본계 캐네디언이 2차대전중 정부로부터 받은 박해는 일본의 진주만기습이 있은 직후 서해안지대에서 18~45세의 남자들이 퇴거당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 단파라디오, 카메라, 자동차를 빼앗기는데서 시작되었으며, 42년 2월에 이르러서는 B.C.주의 22,096명(그중 17,225명은 시민권자)이 일제히 재산을 몰수당하고 내륙의 강제수용소에서 강제노동에 이용되었고 이로써 가족들은 뿔뿔이 분산되었다.

이마이대변인은 2차대전의 다른 적국인 독일과 이탈리아계 캐네디언들은 다른 시민과 똑같은 생활을 누렸던 반면, 유독 일본계만 핍박을 받은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말했다.

지난 1950년 연방정부는 250만달러를 일본코뮤니티에 지불했었으나 일본인들은 이를 전액 지불한 것으로 인정해오지 않았었다.

"해외여행선물 근절"

전대통령 공무원에 지시

(서울 14일=연합)전두환 대통령은 14일 정부공무원들에게 해외여행에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의 교환을 근절하는데 솔선수범하라고 지시했다.

전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한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년 사업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세관원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공무원의 가방을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시달했다.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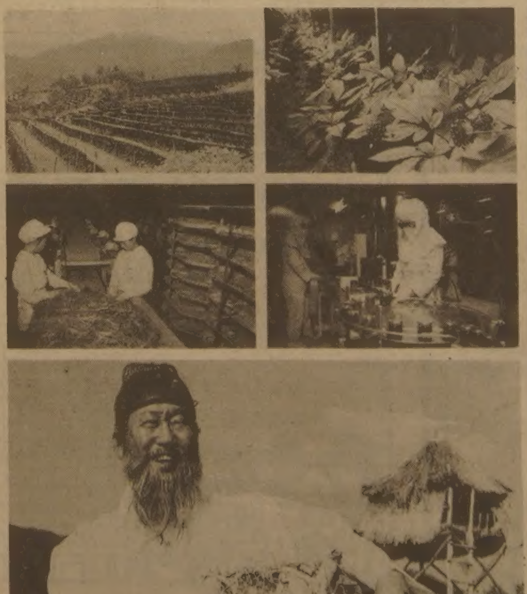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TORONTO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고려인삼
대할인봉사

녹용, 인삼전문 수입상인 빅·세븐에서는 길림산 대혈 녹용 1등품과 중국산 특산 보약 십전대보탕과 고려인삼 6년근을 대량 확보하고, 특별세일 가격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하고저 하오니 일차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말 제분하는 써비스도 하오니 많은 애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빅·세븐
귀국 선물 용품
선물센타
678 BLOOR ST. WEST
533-7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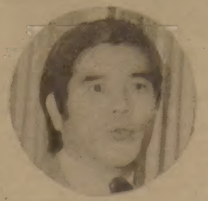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동우회장에 서명식씨

12일 제6회 정기총회 개최

250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토론토내의 최대 한인단체중 하나인 「재 토론토서독동우회」가 12일 저녁 한인회관 강당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서명식씨를 제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CCM회사에 근무하는 서씨는 단독 후보로 출마, 참석회원 50여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영신씨 후임으로 83년도 회장에 당선되었다.



◆서명식 회장

서회장은 미리 준비해온 인사말을 통해 「동우회는 다른 친목단체와는 달리 생사고락을 같이한 산업전사들의 모임」이라고 전제하면서 동지로서의 의리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서회장은 83년 한해동안 동우회를 이끌어 갈 부회장이하 임원단의 인선을 빠른 시일내에 끝마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한 나상선·박천봉·채상희·변장엽·지명환씨등 5명이 이사 선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15명의 신규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물러가는 원영신회장단은 장순채씨(고문)와 임정재씨(기록)에게 감사패를, 고광남(81년도 이사장), 이호석(81년 부이사장), 김근칠(81년 총무이사)씨등 3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 성립 정족수는 정회원 50명으로 한다」를 「출석인원으로 한다」로, 「정기총회를 매년 2월중에 소집한다」를 「6월 혹은 7월」로 회칙을 개정, 정기총회를 매년 6~7월에 실시해오던 야유회와 겸해 경비를 절감하자는 안이 나왔으나 모두 부결됐다.

77년 10월 발기인총회를 거쳐, 78년 3월에 제1차 정기총회를 가진 동우회는 서독 광산에서 재직했던 사람들을 정회원으로, 서독에서 타직종에 종사했던 사람을 준회원으로 하고 있다.

박영대 바이올린연주회

21일 세인트·로렌스·센터

◆박영대씨

토론토·심포니단원이며, 바이올리니스트 박영대씨가 오는 21일(월) 세인트로렌스·센터 타운·홀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박씨는 이날밤 8시 바이올린의 웬디·로즈, 비올라의 모리스·펠레티에, 첼로의 다니엘·동, 바스의 티모디·도슨및 피아노의 로렌스·피치코등 다른 5명의 캐네디언 연주가들과 함께 연주한다.

연주곡목은 로돌프·마디유의 피아노 5중주, 슈만의 피아노 5중주 작품 44번, 슈베르트 5중주곡 작품 114번 "숭어"등이다.

티켓은 366-7723 세인트·로렌스·센터 타운·홀에서 구입 가능하다.

선련사 정초법요식

30여 신도 모여

한국불교회 선련사(주지 김삼우 스님)의 구정맞이 정초법요식이 13일(일) 오전 11시반부터 30여 한국계 및 캐네디언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법요식은 관음기도 정조, 발원문 낭독, 삼우스님의 법문, 신년인사와 대중공양에 이어 하오 2시반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삼우스님 일행의 한국사찰 탐방 슬라이드 상영이 있었다.

선련사는 14일부터 일주일간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정초 7일기도를 봉행한다. 문의는 선련사 533-6911, 532-2491.

교민동정

◆유승민=세방여행사를 차린 유씨는 12일 하오3시부터 720 스파다이너·애비뉴(블루어 남쪽) 업소에서 개업파티를 성대히 가졌다.

◆김태진씨(실협 전 이사장)=3녀 수희(스잔)양이 키와니스대회 11살이하 부문 피아노 지정곡에서 3등했다. 3년 계속 이 대회에 입상해온 수희양은 현재 힐콥중학교 6학년에 재학중.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70>

이상한 女人 ⑮

"당신처럼 듬직한 남자가 필요해요"

가슴이 풍선처럼 위로 부풀어올랐다。 그는 호흡이 거칠어졌다。

「금덩이인가요?」

「그런건 아니예요。」

「그럼 뭔가요?」

「말할 수 없어요。 모세와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잠적한거예요。 우리는 운반책이었어요。 그것은 유럽과 미국으로 갈 물건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훔친거지요。 조직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그것을 찾고있어요。 그건 그만큼 어마어마한 물건이에요。 이제 그 물건은 우리 손에 있어요。 나는 그 장소를 알고있고 당신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우리」란 말을 썼다。 그 한마디에 두봉은 적이 마음이 놓였다。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나는 당황했어요。 나는 지금 완전히 혼자예요。 여자 혼자서는 그 물건을 처분할 수가 없어요。 여자 혼자 다루기에는 그 물건은 너무 어마어마해요。 나는 남자가 필요해요。 당신처럼 듬직하고 성실한 남자 말이에요。」

「나는 성실하지도 못하고 듬직하지도 않아요。」

그는 술을 거칠게 들아쉬었다가 후우하고 내뿜었다。

「담배 피우시겠어요?」

「한대 주시오。」

여자는 바다에서 담배갑을 집어 두 개비를 뽑아냈다。 그녀는 먼저 한 개비에 성냥불을 붙인다음 그것을 남자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매우 따뜻한 우정의 표시같기도 했다。

그는 여자의 타액이 묻은 담배를 받아 입으로 가져갔다。 방안은 두 사람이 내뿜는 연기로 금방 가득 찼다。

「당신이 나를 도와준다면 나도 당신을 돕겠어요。 우리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공존공생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장 갈데가 없지 않아요?」

朴男 그림

「나는 과멸이요。 나는 어찌 되든 상관 없지만 우리집 사람하고 아이들이 불쌍해서 견딜수가 없소。 그렇다고 많은 재산을 남겨둔 것도 아니고…세상천지에 나처럼 바보같은 놈도 없을 거요。 바보 같은놈…」

「아이들은 몇이나 돼나요?」

「넷이요。 마누라는 항상 골골거려요。」

그는 갑자기 정색을 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하고 모세가 내 누이한테 그런 짓만 하지 않았다면 사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거요。 모세도 그렇고 당신도 나쁜 여자야。 악마 같은 여자야。 죽여버리고 싶어!」

그는 주먹을 쥐고 일어섰다。 그의 갑작스런 태도에 수지도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다리 사이에 둘쳐있던 타월이 밑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이제 몸에 아무것도 가리고 있지 않았다。

그는 거칠게 숨을 들아쉬면서 그녀의 하복부를 노려보았다。 그가생각했던대로 그곳은 무성한 밀림지대였다。

「지금 와서 그런걸 따져 뭘해요。」

「듣기 싫어!개 같은 년!」

마리화나 계몽실시

3월부터 TV광고 통해

캐나다정부는 3월부터 청소년들을 마리화나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TV광고 방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연방보건성의 로리·죤스여사가 밝혔다.

"우리는 10세로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계몽하기를 원하며 계몽교육으로는 TV방영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죤스여사는 또한 대개 이 나이에 마리화나에 대한 유혹과 관심이 많고 경험하며, 20세에는 그 절정과 더불어 많은 문제에 고심한다고 말했다.

12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중 약 25%가 마리화나를 복용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들을 위한 TV방영 정보는 3월중 가족부양비(Baby Bonus) 송금시 함께 각 가정에 발송할 것이다.

코너스 우승, 상금$10만 차지

제3회 몰슨·챨렌지·테니스 대회

13일 메이플·립스·가든에서 열린 제3회 몰슨·챨렌지·테니스 결승에서 지미·코너스 선수가 스페인출신 호세·이게라스선수를 세트스코아 3:1(6:2, 6:0, 5:7, 6:0)로 물리치고 정상을 차지했다.

당초 출전 예정이었던 비온·보그와 이반·렌들등 강호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30세의 코너스는 5번 경기를 통해 총 13세트의 경기중 12세트를 이겼다.

이날 코트에는 약9천여명의 관중이 입장하여 결승경기를 지켜보았는데 준결승에 이미 코너스에게 2:0으로 패한 이게라스 선수는 게임운영이나 기술면에서 적수가 되지 못했다.

클레이·코트의 명수인 이게라선수는 게임후 "매우 피곤하다, 집으로 가서 쉬고 싶다"고 담담한 표정이었고, 코너스는 "여러번 은퇴를 생각한 적은 있으나 아직은 그럴 수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번 경기의 승리로 지미는 U.S.$10만의 상금을, 2위인 이게라스는 $5만을 각각 차지했다.

강호들의 불참의 여파로 6일간 경기의 관중동원은 작년보다 약 6천여명 적은 47,000명에 불과했다.

「성직자 구함」광고 성공적

못박힌 예수상 포스터, 문의쇄도

로마 가톨릭 토론토소식통은 지난번 토론토일원에 나붙은 "성직자 구함"의 대형 포스터의 효과가 대중에게 파급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75건의 성직문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3주전 공고시작이후 가톨릭 가정, 학교, 교구에서는 지난 20여년안에 최고조로 성직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만발하였다.

$20,000이상의 비용을 들여 35개소에 게시된 대형포스터는 토론토 다운타운의 고층빌딩을 배경으로 십자가에 못박혀 피흘리는 그리스도의 처참한 모습으로 "나와 같은 성직자가 될 뱃심의 사람"이라는 표어와 연락전화번호가 적혀있었다.

한편 교묘한 선전기술을 이용한 이 포스터로 인해 신에 대한 모독과 혐오감을 주는 것이라는 강한 비난도 있었다.

가톨릭교회는 현재 신부1명이 약 3,000명의 신자를 사목하고 있는데 5년안에는 약 5,000명에 1명꼴로 부족한 신부기갈을 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주 동계 카니발 안내

티민스, 와와등 다채로와

대부분의 캐나다 사람은 겨울철의 즐거움과 낭만을 놓치지 않는다.

두텁고 따뜻한 옷을 입고 야외에서의 겨울을 즐긴다.

여러지역에서 겨울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각종 행사에는 퍼레이드, 썰매경주, 스노우모빌 경주, 눈-조각, 컬링, 크로스·칸추리 스키경기, 개 썰매경기, 다양한 어린이들 게임등이 포함된다.

온타리오의 경우 많은 겨울 축제가 다음과 같은 곳에서 개최된다. (안내문의 전화 참고)

◉Feb. 17-20: 티민스(Timmins) 카니발-연락처: 라몬드·문화센타. 전화: (705)267-8401

◉Feb. 17-20: 와와(Wawa) 카니발-연락처: 빌·영. 전화: (705)856-2626

◉Feb. 18-20: 할리부톤(Haliburton) 카니발-연락처: 폴·윌슨. 전화: (705)457-2811

◉Feb. 18-20: 포트·시드니(Port Sydney) 카니발-연락처: 애티·로빈슨. 전화: (705)385-2271

◉Feb. 20: 곰리(Gormley) 카니발-부르스 자연보호지연. 연락처: 엔리·위킨스. 전화: (416)661-6600 Ext. 252

◉Feb. 21: 토론토(Toronto) 카니발-깁슨·하우스. 뮤지움·헤리티지. 연락처: 메레디스·칠톤. 전화: (416)225-0146

◉Feb. 25-27: 포트·프랑시스(Fort Frances) 카니발-연락처: 프란·무레이. 전화: (807)274-7198

「온」주 마캄

가장 수입높은 지역

캐나다 도시중에 가장 수입이 높은 지역이 온타리오주의 마캄지역으로 나타났다.

최근 캐나다 국세청이 전국 100지역에서 약 17,150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마캄지역의 주민 연평균 수입이 $19,133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온타리오주 오크빌($17,806), 알버타주 칼가리($16,962), 온타리오주 벌링톤($16,621)순으로 나타났다.

〈현대적 속담풀이〉 ⑩

열 손가락

오강남 박사(종교학)

유기체 의식

우리 어머님은 여럿이나 되는 자식들을 기르시면서 하나하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쏟으셨다. 하나라도 혹 아프거나 하면 "내가 대신 아프자"고 하시며, 스스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려 하셨다.

특히 어릴 때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막내누나에 대해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베푸셨다. 그러면서 항상 「열 손가락에 어느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을까?」하는 속담을 인용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소박한 말씀에서 알게 모르게 형제들이 모두 손가락과 같은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겨놓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관계를 좀 거창한 말로 표현하면, 소위 「유기적」(organic) 관계라는 것이다. 콩가루 집안이 아닌 이상 가정이란 가족 성원이 모두 상관관계를 가지는 유기적 단위인 것이다.

마치 우리의 신체 각부분이 서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움직여 가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눈, 코, 입, 귀, 팔, 다리, 허리, 배, 손발, 오장육부, 어느 하나라도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없다. 모두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으며 각각의 기능을 발휘할 때 하나의 완전한 단위로 존립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아프면 모든 부분이 다같이 고통을 당하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없으면 하나의 완전한 단위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가정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유기체라 볼 수 있다. 「국가가 일종의 유기체」라고 하는 설은 특히 헤겔학파에 속하는 정치철학자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헤겔식으로 전체주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유기체설이 아니다. 헤겔의 학설은 유기체가 각부분을 초월해서 존재하듯 전체로서의 국가도 개체로서의 구성원을 초월하므로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와는 반대로 사회나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하나하나의 불가결성, 각구성원의 존엄성, 구성원 상호간의 불가분의 유대관계를 강조하려는 것이다.

사회와 국가를 이렇게 유기체로 파악한다면 우리로서 몇가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일이 있을성 싶다. 사회 어느계층이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그 고통을 우리 모두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쪽 팔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무관심하고 있는 몸이 정상적인 몸일 수 없듯, 구성원의 일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상관하지 않는 사회도 정상적인 사회일 수 없다. 배만 잔뜩 부르고 머리가 텅빈 몸이 건전한 몸일 수 없듯 경제적으로만 살찌고,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허탈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도 건전한 국가일 수 없다.

눈과 입의 역할을 담당한 사회 어느 계층이 눈이 먼 상태, 입이 봉해진 상태로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안녕에 관계되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다리가 튼튼해서 걷기는 잘 하지만 눈이 멀고, 입이 막힌 몸이 제 기능을 다하는 몸일 수 없듯, 눈이 멀어지거나 입이 봉해지도록 강요되는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일 수 없다.

응급치료같은 비상사태도 아닌데, 사시장춘 입이 봉해지고, 눈이 가리워진채 몸에 살만 뒤룩뒤룩 찌게 된다고 기뻐할 수 없다.입이 봉해지고 눈이 가리워진채 팔다리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하여 자유를 누리는 몸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선 모든 기관이 다 제 기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조화스럽게 성장해야 한다. 국가도 국가다워지기 위해선 구성원 각자가 그들의 다양한 기능을 유감없이 드러냄으로 국가 전체가 균형잡힌 발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를 위해 눈이나 귀나 입의 기능을 하다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자. 눈이나 귀가 없어도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환상에 빠지지 말자. 배부른 돼지가 고뇌하는 소크라테스보다 언제나 더 행복하다는 망념에 사로잡히지 말자.

열 손가락 하나라도 깨물리는 일이 없이 모두가 서로 보살피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혹시 한 손가락이라도 깨물리는 일이 있으면 모두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자. 그리하여 열 손가락 함께 「합동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자.

◆확장 이전한 에코시스 가구점 전면

7백명 이상 모인

에코시가구점 이전파티

고급가구를 취급하는 에코시가구점 확장 이전 개업파티가 많은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13일 하오3시부터 몰려온 인파들은 밤9시까지 계속 줄을 이어 김만구사장은 "약 7백내지 1천명은 와 주신 것 같다"면서, "아마 교민개인업소 이전파티에 이만한 숫자가 온 것은 최초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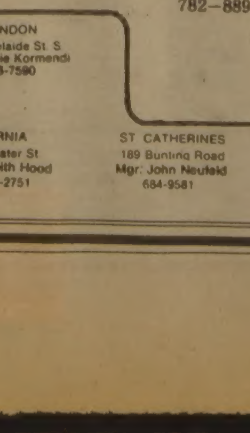
교민들이 보내준 화분(프랜트 포함)만도 무려 72개나 되어 한때 받아 놓을 장소로 곤란을 겪었다. 그 가격을 합치면 3천달러어치 이상이 될것으로 꽃집서는 추산했다.

21 본·로드(Vaughan Rd. × 베더스트·스트릿)에 있는 5천 평방피트(쇼우·룸3,500, 창고 1,500,)의 가구점은 고급가구, 그림, 조각으로 꽉찼고, 그 사이를 하객들이 누벼 큰 성시를 이루었다.

에코시가구점은 이제껏 영·스트릿과 에그린톤 코너 쇼핑·몰안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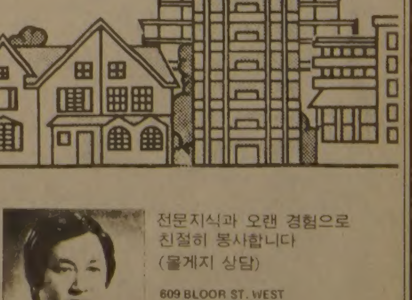
김사장은 타이온스클럽, 한인골프클럽등에서 활약이 많으며, 이외에 교회(중앙한인연합교회), 동창회(서울공고)및 많은 친목모임에 관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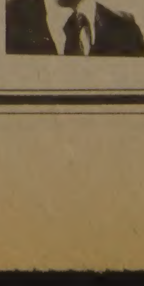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타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363-6077
Mrs. 전



LOEB
CASH "N" CARRY
※ 온타리오주에 10개소의 도매상(토론토에는 3개소)들이 당신의 비즈네스를 위해 성심성의껏 친절 봉사코 있읍니다.
매주 광고전단을 만들어 각 소매상에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원하시는분은 저희 도매상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스페샬품목의 광고전단을 즉시 보내드리겠읍니다.
★★★★ 당신의 M.Loeb Cash & Carry ★★★★
3 CONVENIENT TORONTO LOCATIONS
TORONTO 20 Orfus Road Mgr. Dennis Schulz 782-8892
TORONTO 160 Evans Ave. Mgr. Frank Arnone 255-6366
SCARBOROUGH 55 Bertrand Ave. Mgr. Norm Carmichael 752-7292
LONDON 304 Adelaide St. S Mgr. Ernie Kormendi 686-7590
WINDSOR 2629 McDougall St. Mgr. Gary Villemaire 969-9610
SARNIA 135 Water St Mgr. Keith Hood 337-2751
ST CATHERINES 189 Bunting Road Mgr. John Neufeld 684-9581
HAMILTON 286 Gage St S Mgr. Mark Hagan 549-7069
BRANTFORD 16 Morton Ave Mgr. John Baker 759-4633
CHATHAM 80 William St. S. Mgr. Peter Antuma 354-3000

이대환 不動産
주택/건물/프라자/아파트/사업체 매매 알선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으로 친절히 봉사합니다
(몰게지 상담)
609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B) 535-1251
535-1260
R) 536-4250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독자 페이지

고귀한 사랑의 발견

최 영 호
(한맘청년 지도회장·태권도사범)

지난 1월24일(월)부터 4박5일 보스턴 천주교회에서 있은 「성령세미나」에 우리부부가 처음으로 참석하여 많은 감명과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60명의 참석자중 시간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형제중 H형의 막내딸 「세레나」의 편지한장이 모든 피교육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겨준 깊은 감명은 잊혀지지 않는다.

H형은 부인이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자신은 직장에 나가고 있는 바쁜 생활중에서도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교회에 봉사하는 모범적 생활인이다.

그러나 그에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자녀(스잔나 11살, 세레나10살)를 위해 시간을 갖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부모로서의 죄책감이 앞서 가게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교회로 뛰다보면 일주일이 언뜻 가버리고, 도대체 마음만있지, 실제 자녀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워야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이 점 늘 가슴 아파해 왔던 것이다. 세미나에 와서도 자녀에 대한 걱정, 가게일, 직장관계일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마음이 잘 안잡혔다 한다.

그는 이 생각, 저 생각하며 배치된 방에 가서 짐가방을 펴보다 의외의 편지한장을 발견하였다. 둘째딸 세레나가 써서 몰래 아버지 가방에 넣어준 것이다.

뜻밖의 편지여서 놀랐고, 아직 10살의 코흘리개 막내로 생각했던 그 철부지 꼬마가 어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가?

놀란 나머지 감격의 눈물을 흘렸으나 거기 담겨진 새로운 사랑의 발견과 기쁨을 가눌 길 없어 그곳 모든 형제 자매와 기쁨을 나누었던 감동이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열살어린이 편지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너무나 그리워서 어찌면 울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그분은 항상 나를 돌봐줍니다. 나를 사랑하니까요.

그분은 내게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니까요.

그분은 늘 나를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니까요.

그분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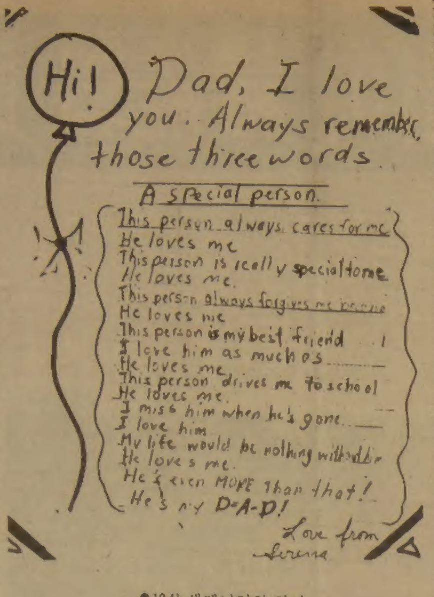
그분은 차로 나를 학교에 태워다 줍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가 어디갔을 때 그리워합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니까요.

그가 없다면 나의 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니까요.

그는 내게 사랑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딸 세레나로 부터"


Hi!
Dad, I love you. Always remember those three words.
A special person.
This person always cares for me
He loves me
This person is really special to me
He loves me.
This person always forgives me
He loves me
This person is my best friend
I love him as much as
He loves me.
This person drives me to school
He loves me.
I miss him when he's gone.
I love him
My life would be nothing without him
He loves me.
He's even MORE than that!
He's my D-A-D!
Love from
Serena

◆10살 세레나양의 편지.

여기서 우리는 이민가정의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시간적 소홀함과 만족스런 사랑을 나누지 못한 아쉬움의 죄책감이 있지만, 한편 우리를 이해하고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 자녀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제부터라도 좀더 작은 일에서라도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고, 더욱더 이해하고 사랑해야겠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부녀의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모든 이민가정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를 간절히 바라고픈 마음 간절하다.

가짜들!

김 원 동(토론토 실업인)

어느 상점의 쇼윈도에 새로운 상품하나가 진열되고 있을때 그 진열대 앞에는 국적이 다른 네사람의 시선이 몰렸다.

"이것 얼마요?"하고 값을 묻는 첫손님은 물론 미국사람, "이것 요즘 유행되고 있는 거요?"하고 묻는 사람은 프랑스인, 세번째의 영국사람은 "이것 신사들이 갖고 다니는 거요?"하고 물었다. 마지막 손님인 한국사람의 차례가 되자 "이것 진짜요?"하면서 돋보기까지 동원했다는 출처불명의 주어들은 이야기의 한 토막이다.

진짜가 실종된지 꽤 오래전만 그래도 이양반 진짜에 대한 향수께나 짙은 모양이다. 가짜학위, 가짜졸업장, 가짜정치인들의 가짜공약쯤은 면역상 그렇다해두자. 멀쩡한 장비를 수채 봉해버린 금호호텔의 가짜비상벨은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몰고 세모의 거리를 슬프게 만들지 않았던가. 진짜가 돋보이기 위해선 가짜가 있어야 하는지, 가짜가 편리하다보니 진짜의 소중함을 모르는 건지, "이것 진짜요?"하는 질문이 우문인지 현문인지 가려보기에도 혼돈이 인다. 불신시대속에서 태어나 배회하다온 나로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있는 이곳은 어떤가? 한마디로 가짜가 먹어들어갈 수 없는것의 체질화다(독재가 잠식할래야 할수없는 원리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가짜라는 것은 우리끼리만의 독점사업이다. 일전에 어느날인가 얼큰하게 취한 모습으로 교포주점에 나타난 동향선배님은 묻기도 전에 입에서 풍기는 향기가 말하듯 옛전우들과 함께 나눈 회포를 운운하며 ××전우회의 년말파티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며 연신 이를 쑤신다.

얼마전인가 기억하긴 어려워도 자기는 분명히 6.25때 빽이 좋아 군대를 가지 않었다면서 "군복무 좋아하네"라며 기염을 토하던 바로 그 자리에 얼서 주저앉는게 아닌가. 고국에 고위층이 바뀌고 나면 본적지가 그 사람쪽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출신교가 서서히 바뀌어지는 그 사람마저 빼 놓을 수 없는 내 동향선배님. 양노원은 내가 먼저라는 구호아래 통합추진측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니는 하나님의 가짜종과 가짜 효자들은 없는지? 한약으로 암을 고친다는 가짜 광고를 보고도 감각의 변화가 없을 정도의 만성이다. 그러나 엊저녁 신문을 집어든 나를 부동자세로 만든 어느 흑인소년의 사진이 있었다.

한글로 된 피켓을 들고 김대중씨의 방미를 환영하는 "뿌리"의 주인공들! 그 흑인이 과연 진짜 환영객인지 가짜 환영객이었는지는 지난해 오타와 한국대사관저에 설치된 금속탐지기 앞에 도열해 있던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짜론"에 대한 나의 영원한 숙제다.

이 사

김 영 무(스카브로)

며칠전 가까운 친구가 그간의 가게(Store)를 정리하고 서쪽에서 동쪽 끝으로 또 한번 이사를 했다.

그간 직장을 다니면서 꽤 여러번의 이사를 뻔질나게 도왔으니 그 친구 가재도구며 주방에 냄비 몇개까지 헤아릴 정도이다.

옛부터 우리네들의 미풍양속이라면 관혼상제에서 그 맥락을 찾을수 있겠으나 온 동네 이웃들이 도와가며 따뜻한 석별의 정을 나누는 애뜻한 이사의 정경 역시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니겠는가?

이민생활이라고 왜 그러한 정감 없겠는가마는 서로가 바쁜 일로 쫓기는 처지들이고 보면 현실에 맞게 좀더 현명한 방법을 택해야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일하는 사람 몇 더 쓴다고 대단한 지출이 아닐텐데, 갑자기 어려운 부탁에 도와주질 못하는 친구입장에 비하면 어느것이 더 비중이 크겠는가?

이제 우리네 세모도 지났고 이곳의 설날도 지났는데 우리 다시 망향을, 외로움을 화끈한 한잔술에 실어보내야 하겠다. 내일은 만사 제쳐두고 잠깐이라도 친구의 집에 얼굴을 비쳐야 될텐데.

성냥 몇통이 이처럼 무거울까!

토론토에 다시 돌아와서

유 근 수 (엔지니어)

토론토를 떠나 몬트리얼근방의 알렉산드리아로 이사한 것이 72년 봄이었고 다시 토론토로 돌아온 것이 82년 봄이고 보면 꼭 10년만의 귀향(?)이었다.

몬트리얼지방에서 6년을, 미국에서 4년을 지내는 동안 다운타운 토론토의 많은 건물들이 사라졌고 대신 무수한 새 고층건물들이 서로 키를 재려 하는듯 들어섰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우리나라나 북미대륙이나 마찬가지인 것같다. 도심지 뿐 아니라 변두리 역시 많이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유명한 도시들이 바다, 강 혹은 호수를 따라 발전하고 또 높은 산을 끼고 있다. 토론토에는 산이 없는 것이 흠이라 하겠으나 서울의 남산처럼 CN타워에 올라가 토론토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것도 장관이다. 미국의 큰도시에 가면 눈에 띄는 스럼가(빈민지역)를 찾아볼 수 없고 아름다운 공원들이 잘 단장돼 있는 것은 토론토의 자랑거리라고 새삼 느껴진다.

많은 명소들 중에서도 온타리오·사이언스·센타, 온타리오·플레이스, 메트로동물원, 원더랜드등은 역시 우수하며 로열·온타리오 박물관은 어느 도시에 못지않은 훌륭한 박물관임을 알 수 있다.

스포츠와 문화면으로도 10년전보다 발전했다. 지난가을 엑스비숀스타디움에서 양키스팀과 부르제이스팀의 프로야구경기를 구경했다. 프로축구, 아이스하키, 골프등을 미국의 도시들과 다름없이 관람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문화면으로도 다운타운에 아트·갤러리(화랑)과 오키프·센터외에도 메시홀과, 로이·톰슨홀이 생긴 것은 또다른 매력이라 생각한다. 4년전 미네소타·오케스트라·홀에서 정경화의 바이올린 독주를 보았을때 오케스트라 전용홀이 있는 것이 부러웠다.

시내 거리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영·스트리트와 블루어가의 뒷골목에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음식점, 술집들의 상가들이다. 더우기 많이 커진 차이나타운은 정말 놀랄만하다. 또한 블루어가에 나붙은 많은 한글간판은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이렇게 외향적으로 달라진 도시의 변모중에도 예나 변함없이 달리는 전차의 모습은 도시의 운치를 더해준다.

아직도 몬트리얼의 샴프레인·브리지와 마이아미의 푸른 바다와 멋있는 종려나무(팜·트리)가 잊혀지지 않지만 캐나다의 상징인 아름다운 단풍(메이플·입)이 낙엽져가는 풍경을 바라볼때는 토론토에 사는 보람과 토론토니안으로서의 긍지를 더해주리라 생각한다.

독자투고를 환영합니다.

투고희망자는 다음 사실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투고자의 성함·주소·전화번호 명기.
(2)가급적 요점만 간략하게 쓰실 것.
(3)개인의 명예나 사업을 근거없이 훼손하는 내용은 사절함.
(4)게재여부및 가필정정등 편집권은 본사에 있음.
(5)일단 접수된 원고는 본사보관이 원칙임.

— 편집부 —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 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 532-7909
549 BLOOR ST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는 한국일보의 자랑입니다
▲광고문의 : 533-2361~4
▲구독신청 : 533-2361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 병 헌

■노년회 척사대회■
윷놀이대회

회원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건강의 축복 있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정월 대보름이 돌아 옵니다. 함께 모여 윷놀이와 음식을 나누며 오손도손 둘러 앉아 기쁨의 웃음을 웃어 봅시다. 많은 상품과 음식도 준비하였으니 오셔서 하루를 유쾌하게 보내시고 푸짐한 사랑도 함께 나누십시다.

일시 : 1983년2월26일(토) 12시부터 시작
장소 : 한인회관 강당
상품 : 1등~5등 트로피와 상품. 참가상 있음.
※1983년도 회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노년회
회장 조영호

어디에도 비교될수없는
저렴한 가격과
아담한 분위기속에서
고객을 맞이하고있아오니
한번쯤 들려보십시요!

오뎅백반	$2.95
칼국수	$2.95
우동	$2.95
짜장면	$2.95
김밥	$2.50
통만두	$2.95
곰탕	$2.95
비빔밥	$2.95
불백	$4.95
갈비백	$4.95
생선찌게백	$3.75
두부찌게백	$3.25
만두국	$2.95
떡국	$2.95
떡만두국	$2.95
된장찌게백	$3.25
순두부찌게백	$3.25
통닭	$4.95
1/2 닭	$2.95

☎537-0432
내고향
통닭집
658½ BLOOR ST. W.

共通善전통·歷程의 경험이 「權能의 民主議會」바탕

議會制 元祖國 「유럽5개국 國會」 見聞記

민주주의이론을 제기한 로크,몽테스키외,루소등을 배출한 고장답게 西歐는 議會민주주의의 故鄕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등은 議會민주주의를 제일먼저 실험, 시작하여 미국 일본등 세계여러나라에 그 제도를 수출했다.

우리나라의 국회도 建國초부터 歐美각국으로부터 제도를 모방, 실시해왔고 특히 제5공화국의 현국회는 그제도나 운영을 이들 나라에서 들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많이 참고를 했다.

유럽과 한국이 역사적 배경이나 현실적與件이 判異한게 사실이지만 의회민주주의의理想을 좇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들의 제도와 현실적 운영이 많은 참고가 될것은 틀림없다.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定着된 이들 西歐 제국은 정치제도나 운영 의회제도의 운영등 여러가지면에서

地自制가 깊은 뿌리

나름대로 특색을 지니고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共通의 유형을 보였다.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歷程을 거쳐 오늘날의 定着단계에까지 이른 그들의 의회제도는 오랜 전통과 地方自治의 뿌리위에서 滿開될수있었다는 共通分母는 두말 할 나위조차 없다.

西歐의 의회제도는 세부적인 과정이나 절차까지도 오랜 역사를 지니고있다.

짧게는 수십년 길게는 1~2백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기때문에 하나의 관행으로서 엄격히 지켜져 오고있다.

그러나 시대상황의변화를 외면한채 전통과 관습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미 국민의 최대의사와 共通善을목적으로 이룩한 제도란는점에서 오늘속에 옛것을 되살리고 발전해가면서 의회의 권능과 권위를 높여가고 있는것이다.

기자가 현지에 가서 살펴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등 5개국중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정부형태와 權力구조면에서 議院內閣制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들 5개국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上下院을 운영하는兩院制였다.

上下院의 권한과 기능配分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어 英·佛·獨은 下院優位, 이탈리아와 스위스는 上下院이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운영형태를 보였다.

특히 英·佛·獨의 上院은 모두 下院을 통과한 法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수있게되어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것에 불과하고 사실은 下院에서 모든것을 다 결정한다.

兼職은 거의 自由業 發言시간,內容 따라

이탈리아와 스위스도 사실상 立法활동의 주도권은下院이쥐고있다.

우리국회가 새로 도입한 의원의 兼職제도는 西歐에서는 오래전부터 보편화된것으로 정부관리등 몇가지를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직업을 가질수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그들이 兼하는 직업은 어느나라나 변호사가 많은게 특징이지만 우리처럼 이름만들어도 세상이 잘아는 큰기업체의 소유주나 간부가 아니라 보수가 많지않은 조그만한 自由業이 대부분이다.

돈많은 기업주가 직접 정치일선에 뛰어든 의원은 하나도없는게 우리와는 다른 현상이었다.

의원의 지위와 신분에 관해「국회輕視」是非가 없고 행정부에 대한 대립개념이나 저항감이 별로 없는것은 의원을 스스로가 모든 결정에 참여하는 의원內閣制의 제도적 특성때문인듯하다.

歲費가 아예 없는 나라도있지만 (스위스는 日當制)대부분의경우 행정부처의 局長級수준의 세비를 받고 교통비,전화,우편요금은 선거구를 위해 쓰는 것이면 무료로 제공되는게 보통이다.

의원들은 어느나라에서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부류에 들어가는게

【黃昭雄 기자】

보통이나 아직도 국민투표가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나라 스위스에서는 의원들이 다른 나라에서처럼 대우를 받는것같지는 않았다.

스스로 의원임을 나타내기위해특별한 배지나 표지를 달고다니는 사례는 어느나라에서도 볼수없었다.

의사당이 관광의 名所로서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즐겨 찾는것은 어느나라나 비슷했고 의원들이 자신의 선거구민을 한때 몰고다니며 안내설명을 하는 광경도 汝矣島 의사당의 풍경과 흡사했다.

英·佛·伊의 경우는 의사당 건물자체가 역사적인 것이기도하다.

西獨은 본격적인 의사당 건물을 아직 짓지 않고 옛날의학교 校舍를 쓰고 있는것은 西伯林의 불탄 帝國의회를 새로 단장한것과 함께 통일에의 염원을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免責 特權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특히 西獨의 경우 임기중 現行犯이 아니거나 또는 의회의 동의가 없는한 民事나 刑事的 이유로 구속되거나 訴追를 받지 않는다.

英國은 會期중은 물론 會期前後 40일동안 免責特權을 인정하고있다.

정치인이 말하기를 좋아하는것은 東西古今을통해 공통된 속성인듯 유럽선진국에서도 의원들의 원내발언은 지나칠정도로 엄격한 규정을 두어 제한하고있다.

의원들의 발언은 그내용과 성격에 따라 짧으면 5분 10분, 길면 1시간정도까지 까다롭게 일일이 시간제한을 하고 있다.

발언내용에 있어서도 동료의원이나 각료등 他人에대한 모욕을 할경우 발언을 중지하거나 퇴장시키도록 되어있는데 이런경우는 실제 흔하지는 않으나 1년에 한두번은 있을정도라는게 의회관계자의 설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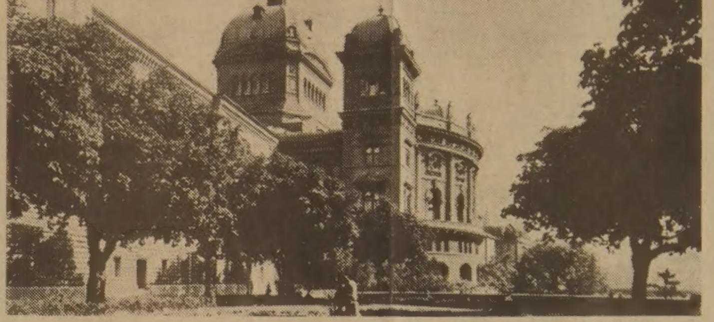
의회운영은 상임위보다는 本會議중심운영이 많은편이어서 英國은철저하게 본회의 중심운영이고 프랑스도 常委는 기술적인것 사소한것만 다루고 본회의에서 대부분 심의처리한다.

西獨은 양자를 비슷한 분량으로 活用하고있다.

本會議와 常委의 회의는 공개하는게 상례이고 의장의 허가에 따라 텔레비전 중계방송도 가능한데 西獨의 경우는 아예 본회의장에 3개의 TV카메라를 고정으로 설치해놓고 있었다.

유럽의 각신문은 의회기사를 언제나 比重을 두어 다루고 있는데 런던의 더 타임즈지는 의회란을 고정으로 두어 주요문제에 관한 토론내용을 의원들의 개별 발언을 요약한 紙上錄音으로 소개한는게 보통이라고 출입기자들은 전했다.

아뭏든 유럽각국의 議會는 오랜 風霜을 거친 古色蒼然한 이끼낀 의사당건물이 역사와 관록을 말해주듯 국민의 代議機構로서 그권위와 권능을 더해가고있다.



◇유럽의 선진제국은 오랜역사와 전통속에서 제각기 特色을 지닌 의회제도로 민주주의를 운영해나가고 있다。특히 이들나라의 의회민주주의는 엄격한 議事규칙을 의원들이 잘지키는 自律的인 立法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民意의 전당으로 定着하고 있다는점에서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것이다。사진은 與野가 마주 보고앉아 토론을 벌이는 英國下院(上)과 국민투표등 직접 민주주의 때문에 弱化되고있는 스위스의 聯邦의회 의사당(下)。

프랑스 地方議員을 兼職

電子투표…열쇠줘 위임도
週末엔 選擧區찾는 관례

영국처럼 1人1區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임기5년의 4백91명으로 구성되는 下院은 4월2일부터 시작되는 90일이내의 春季會期와 10월2일부터 시작되는 80일이내의 秋季회기가 定期會로 되어있다.

현재 下院의 의석분포를 보면 社會黨이 2백65석으로 압도적 다수이고 이와 비슷한 성분의 사회당 연합과가 20, 공산당 43, 공산당연합파 1석이고 보수파인 자크·시라크派가 79석, 그 연합파가 9석, 지스카르파가 51석, 그연합파가 11석이고 무소속 12석.

대통령이 의회에 나오는일이 없는게 특징의 하나인데 모든 의안은 반드시 常委를 거쳐야 한다.

원내교섭단체는 30명이상으로 구성하게되어 있다.

회의는 水·木·金요일에는 상오9시30분에 시작하여 하오7시30분에 끝나는데 필요하면하오9시30분에 再開하고 火요일은 하오3시에 시작한다.

그러나 木요일에 모두 끝내고 金요일에는 지역구로내려가는게 보통이다.

의사일정은 의장단 각상임위원장 재무위간사 각교섭단체 원내총무 정부대표(장관 1명)가 모여 결정한다.

의원은 市長과 市의원 道의원을 겸직하고 있는데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정치적 지지 기반이 없으면 下院에서도 力量을 별로 취하지 못하는게 상식으로 되어있다고한다.

의원은 정부 각료나 관리 은행임직원을겸직할수없고國營기업체 임직원으로 임명되면 6개월간만 겸직이 가능하다.

의원이 大使로서 6개월간 겸임한 사례는 실제로 흔히 있다. 발언시간은 의제에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의석비율에 의해 할당하는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있다.

따라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는 불가능한것이다.

수정안에 대한 토론등에 대해서는 5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對정부질문은 20분까지 발언할수 있고 정부의 답변을 들은 뒤 다시 10분을 추가 발언할수 있다.

정부측 답변은 다른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에는 장관이 해야하며 常委에서는 국장통이 나가서답변할수있다.

토론종결이 된후에도 소수파의 의견을 존중하기위해 5분전에 적어도 두사람에게 表決동안 반대토론을 할수있다.

매주 금요일 상오에 한해 각료를 상대로 의원들의 자기지역구에 관한 발언을 할수있다.

투표는 각자 의석마다 電子투표기가 설치되어 있고 의원들은 열쇠를 가지고 贊·反·기권으로 표시된 전자투표기를열어 투표를 한다.

不參하는 의원은 다른의원에게 열쇠를 주어 위임투표하는 경우도 있다.

의석에는 각자 이름이 銅板에 새겨져있는데 빅토르·위고 같은 유명인의 이름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정부法案은 上·下兩院에각각 제출되나 재정관계법안만은 먼저 下院에 제출되어야한다.

의원 立法의 경우 발의 定足數에 제한이 없고 공공재정지원을 감소시키거나 공공지출을 증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은 제출할수없다.

의원의 세비나 대우는 후한 편이어서 기본급 2만6백82프랑 주택수당 1천34프랑 직책수당 5천4백29프랑등 月2만7천1백45프랑 (약4천달러)을 받는다. 이는 행정부의 局長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방출신의원을 위한 아파트가 제공되고 2명의 비서에 대한 국가보조를 받으며 의사당에서 쓰는 장거리전화와 公用우편료, 철도이용이 무료이고 운전사와 자동차가 제공된다.

파리와 선거구간의 항공료와 침대칸을 이용할 경우의 철도요금은 60%를 보조해주고 선거구가 아닌 지역의 여행은 연간 6회까지 여비를제공받는다.

역사적으로 유럽각국의 議會중 프랑스의회처럼 受難과 변화를거듭해온 의회도드물다.이러한 변화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능이란 함수관계에서 비롯됐다. 戰後 드골헌법으로 강력한대통령중심제가됨에따라 의회의 역할과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위축될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이전 내각책임제하에서도 지나친 多黨制에의한 마라톤 聯政구성, 붕괴정당과 政派의 亂立으로 토론장이 아닌 對決場化함으로써 국민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60年代이래 강력한 대통령制로 전환하면서 프랑스의회도점차 나름대로의 운영과 제도를 정착, 民意의 殿堂으로서 聲價를 높이고있다.

스위스 報酬없고 日當만

4년분 法案준비…各界의견 반영

永世中立國인 스위스는 1920년부터 3黨이 절묘하게 균형을이룬 聯政으로 놀라울정도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오고있다.

79년 總選결과로나타난 현재의 議席分布는 下院 (2백석)의경우급진민주51, 사회민주51, 기독민주국민44, 스위스국민당23에 독립당과 자유당이 각각8석, 기타16석으로되어있다.

上·下院은 동등한권한을갖는게 특색이다.

일단 연방의회에 案件이 제출되면 上·下院은 각각 이를 따로심의하며 兩院의 의견이 일치하지않으면 아무런 결정을 볼수가없다.

법안을 심의한끝에 의견차이가 나오면 上院은 下院으로, 下院은 上院으로 각각심의결과를 보내 서로 타협을모색하고 그래도 異見조정이 안되면 兩院에서 仲裁委員을뽑아 합동조정회의를한다.

스위스聯邦의회의 立法과정은 이익 또는 壓力단체에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도록 제도화하고 있는등 특색이 있다.

즉 의회가 4년임기를 시작할때 전체적인 立法계획을 執權與黨이 수립해서 이를 兩院에서 토의에 붙인다.

그런뒤 정부각부처에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짜서 內閣에 제출한는것이 1단계이고 2단계는 이익및 壓力단체가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는것. 3단계는 各界대표가 참여하는「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에 들어가는데 이때 서로 이익이 상충되는 단체 (예를 들면 勞使등) 가 서로 자기주장을 펴고 정부측은 이 토론과정을 시종 注視, 기록한다.

최종적으로 토의내용이 文書化됨으로써 기초작업은 일단 매듭짓게 되는셈이다.

文書化된 토의기록은 해당部處의 의견서와 아울러 內閣에 제출되고 이단계에서 他部處의 의견이 제시된뒤 上院이나 下院에 제출된다.

어떤 法案이 제출될때마다 전체회의로 넘어가기전에 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을 사전 검토하는데 각정당은 이때 소속 의원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제시한다.

州정부관리·勞組요원까지 겸직

會期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번씩 年4회에 열리지만 대개 2~3주로 끝나는게 보통이어서 1년 통틀어 10~12주간 열리는게 常例로 되어있다.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그것도 대개 1주정도.

의원의 발언은 下院에서는 처음엔 10분, 보충발언은 5분으로 제한하고있으나 上院은 의원이 불과 46명밖에 안된탓인지 제한이 없다.

聖職者와 연방정부관리만은 겸직의 예외이나 연방정부관리는 출마 할수있다.

이경우 낙선되면 그자리에계속 근무할수있고 당선되면 辭職해야한다.그러나 州정부관리는 겸직할수있어 이 부류의 겸직이 많고 변호사가 특히 많은 편. 교사,의사, 노동자,농민도 상당수가 있으며 勞組요원들도 많다.

의원직은 철저한 명예직이어서 일정한 報酬는 없고 회의가 열리는 경우 日當(현재는 2백10프랑)을 지불한다.

국민투표와 철저한 州權확보에 의한 聯邦制때문에 의회가 기를 펴지 못하고있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민투표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통계에 의하면 스위스가聯邦으로 출발한 184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백10여회의 국민투표가 있었다. 그중 90여개가 법안에, 2백여회가 헌법개정에 관한것이었다.

국민투표와 연방정부에의 예속을 거부하는 州權이만발하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큰소리할수 없는게 당연하다. 이에대한 反省論이 대두되고있는것은 당연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스위스에는 이른바 強者나 실력자는 하나도 없다. 7명의 각료중에서 차례로 선출되는 임기1년의 대통령에게는 따로 사무실이 없고 겸임하는 장관실에서 근무하고 외교사절의 신임장을 접수하는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을뿐이다.

英國 與野가 마주앉아

月~木曜日 하오마다 열어
議員「利害단체」등록·공개

多黨制를 운영하고있는 대부분의 유럽국가와는 달리 오래전부터 兩黨制가 정착되어있는 영국의회는 與野가 마주보고앉아 토론을 벌이는게특징이다.

여당은 각료를 앞자리에, 야당은 執權에 대비하여 구성해놓은 새도우·캐비니트 (그림자內閣) 의 각료들 (간부들) 을 앞자리에앉히며 平의원은 뒷자리에 앉기 때문에 「백 벤처」라고 부른다.

의원의 定數는 6백40명이나 의원마다 지정된자리가없고 길다란 벤치에 임의대로 앉게 되어 있는 議席의 수용능력은 4백30명밖에 안되어 立席의원이 생기게 마련.

각당의 총무단은 매주 소속 의원들에게 案件을 배포할때 표결가능성이 없는것은「한줄」로 표시하여 회의에 안 나가도 무방하고 「두줄」은 표결은 있지만 주요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당 의원과 짝을지어 不參해도 괜찮고 「세줄」은 무조건 출석해야 한다는 강제 명령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다.

회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하오2시30분에 開議하며 1시간동안이 질의에 할애되어 있다. 수상은 火·木요일 하오3시15분에 답변을 하며 다른 각료들은 특정 요일을 정해 돌아가면서 답변을한다.

회의종료 시간도 明文규정이 있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매일 하오 10시30분까지, 금요일은 상오9시30분에 시작하여 하오3시에 끝내게 되어있다.

그러나 의원의 요청이있으면 연장이가능하며 실제로 새벽까지가는 경우도있다고 의회관계자가 전했다.

年間 開會일수는 下院이 1백75일, 上院이 1백40일이다.

下院은 11월부터 크리스머스까지 40일, 1월중순부터 부활절까지 50일, 6~7월의 40~50일간 그리고 10월의 단기 會期로 되어있다.

下院의 의안심의는 全員위원회와 이를 분야별로 보조하는 選任委 (12개) 와 상임위 合同委에서 주로 이뤄진다.

選任委는 우리국회常委와 비슷한것으로 행정부처 업무에대한 전문적인 심사를한다. 常任委는 일반과 특별 두가지가 있어 일반常委는 회기마다 의안심사를위해「A위원회」「B위원회」식으로 구성되며 특별常委는 北아일랜드위원회등 5개가있다.

법안의 제출은 정부와 의원이외에 지방당국 법정회사 사기업 개인이 請願형식으로 할수있으며 上·下양원 어디에서나 발의할수있다.

그러나 재정관계법이나 課稅 공공지출에 관한것은 下院이전담하고 있는데 의원들은歲出이나 稅收증대를 가져오는법안은 제출할수 없다.

의원의 발언은 사전에순서가 결정되며 시간은 15분을넘지않는게 상례이고 내용은 추상적이아닌 구체적인 것이라야한다.

특히 對정부질의는내용을 2일전에 제출하는데 그내용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일것▲정부의 조치를 요하는것일것▲법률적 해석이나 소문, 신문보도를 인용또는 언급하지말것▲동일會期중 이미 질문이 있었던것이 아닐것▲정부가 책임질수있는 문제로 구체적인 제한을 하고있다.

각료를 상대로 질문을할때야당의원은 「존경하는 신사」, 여당의원은 「존경하는 친구」라고 호칭한다.

얼마전에는 한의원이「장관은 거짓말장이」라고 했다가 5일간 의사당 出入을 금지당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발언시에는 원고를 낭독해서는 안된다. 의장은 의제외 발언이나 중복발언에 대해 중지를 명할수 있으며 의사진행방해를 막기위해 어느 법안에 대한 전체토론시간을 미리 결정하여 제한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表決에 붙이게 하고있다.

의제외발언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지역구출신 의원을위해 하루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뒤 의원들의 동의에 의해 30분간 지역구 문제를 토의할수 있게 되어 있다.

이때 발언자는 사전에 書面으로 발언신청을 해야하며 의장은 1주일간에 4명의 의원에게 발언을 허락하며 같은 주에 한의원이 두번 발언할수 없다. 英國의 표결방식은 특이한 分列式을 채택하고 있다.

즉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면 찬성의원은 의장오른쪽 방향으로해서 본회의장을나가고 반대의원은 왼쪽으로 나가는것이다.

下院의원의 年俸은 1만3천1백50파운드로 정부의 과장급수준에 해당하며 上院의원은會期중에만 日當이 지급되고 歲費는없다.

下院의원은 1인당 비서수당 1명분과 통신료, 런던과 출신지역구간의 철도항공 선박의 1등석을무료로 이용하며 조사연구비는 청구하여 받을수있다.

이들은 歲費의 5%를 年金기금으로 拂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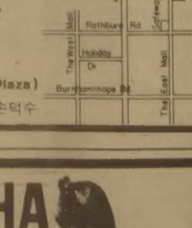
初選이나 少壯의원들이 多選의원이나 각료의원, 비서관으로서 정치를 배우는사례가많이있는게 특색이다. 의원의非違를 사전에 억제하기위해 매년1월 의원들과 利害관계가있는 기업부동산 단체등의명단을 의원개인의 이름과함께 수록한 「의원들의 利害관계등록」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공개하고있다.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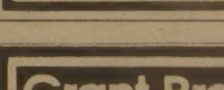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드리는
한인식품
한인에 필요한 식품 생활필수품 일체
연중 무휴 아침10시부터 밤10시까지
시내 전역과 근교 무료배달



15 West Deane Pk. Dr. (east mall Plaza)
Etobicoke Tel. 622-2643 대표 손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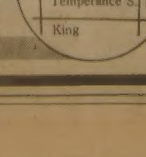
萬富宮海鮮飯店
KUNG FU MAN RESTAURANT
133-135 Dundas St, West,
Toronto, ONT, M5G 1C4
TEL: 598-3658
사천요리 전문
⊙신장개업 특별봉사
특히 팔진두부, 게탕, 해삼탕,
면류, 각종 중화요리



평일 11-12시
Fri, 1/:00-다음 날4시까지
Sat,Sun, pm,2:00-다음 날2시까지

여성교양생활지
주간 女性
판매처·각한국식품점
지방구독자·3불(우송료포함)
구독신청·한국일보사
533-2361

오사까 하우스
12 TEMPERANCE ST,
TEL: 368-2470 OPEN 7DAYS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
(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초밥, 국수류등)
월~목 11:00AM~10:30PM
금요일 11:00AM~11:00PM
토요일 5:00PM~11:00PM
일요일 5:00PM~10:00PM



YAMAHA
건반악기 Porta Sound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247-7161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 (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 (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總帥이름 가나다順>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企業總帥들의 待春賦

한국일보 특집판

국민의 經濟意識 성숙…自信感

具滋暻 <럭키金星 會長>

큰 추위없이 겨울이 가는가 싶다. 대지는 멀지않아 다시 힘을차리고 왕성한 生氣를 재개할 터이다. 말랐던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새 싹이 돋는 것을 보고 있자면, 그 신비스러운 자연의 힘이 사람에게 옮겨오는듯 느껴지는 체험을 새 봄에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연유로 해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人之常情이 아닌가 한다.

자연은 벌써 어김없는 봄기운인데, 함께 와주었으면 싶은 세계경제의 봄은 여태 기척이 없고 아직 멀었다고 하는 전망들이 많아 안타깝다.

며칠 전에 배달된 어떤 외국잡지에, 무심코 넘겨버리지 못할 보도가 눈에 띄었다. 내용인즉, 요즈음 美國의 곳곳에서는 집이나 땅을 담보로 은행같은데서 돈을 꾸어쓴 사람들이 제 때 빚을 갚지 못해 결국 저당잡힌 재산을 강제로 처분당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지방에서는 그 지경이 된 토지를 공매에 붙이려는 집달리와 땅을 잃지않으려는 농민들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나서 곤봉이 날고 최루탄이 터지는가하면,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사람도 생겼다고 큼지막한 사진까지 곁들여 실려있었다.

그리고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워 1년안에 집이나 땅을 빼앗길 것같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부채를 지고있는 美國시민들 가운데 3분의2 가량이나된다는 조사결과도 인용되어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 美國經濟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거니와 참으로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요사이 신문이나 잡지에서 일자리를 얻으려는 그 나라 실업자들의 雲集을찍은 사진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있다. 마땅한 일거리를 찾아보겠다고 그 넓은땅덩어리의 이곳 저곳을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의 行列이 끊이지 않는다고도 한다.

작년 가을에 회사일로 미국에 갔었는데, 실업률이 10%를 넘어서서 40여년만에 최악이라는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난 것을 보기도 했지만, 여러층의 미국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참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體感할수 있었다.

풍요의 땅이라고 불리던 세계 최선진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지금 이같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형편이다.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세상에 잘 알려진 어떤 경제전문잡지사의 사장과 점심을 같이 한적이 있었는데, 식탁의 대화는 역시 시종일관 경제문제였다.

그 사람이 앞으로 세계경제는 어떻게 될것 같으냐, 경제를 살리자면 무슨 묘안이 없겠느냐 하고 물길래, 확신도 없고 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어버렸다.

그랬더니 그사람 말이 내가 그걸 딱 부러지게 알고있다면 진작 우리 잡지에 썼지 왜 안썼겠느냐고 하는 것이었다. 잡지사 안에 있는 기자들 간에도 도무지 의견이 모아지지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우리는 한바탕 웃고 말았지만 정말이지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에만 의견이 일치할 뿐 처방은 區區各色인듯하다.

그리고 설혹 좋은 방책이 나서더라도 이해가 걸리고 설킨 나라들끼리 서로 양보할 것은 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풀어나간다면 모를까, 우선 제 발등의 불부터 끄고보자는 식으로 서로 자기 쪽으로만 줄을 당기려고 하는 마당이라서 어떤 처방도 충분한 효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여러 군데의 세계시장에 접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겪고 보는 일이겠지만 너나 할 것없이 서로 양보하거나 협력하기 보다는 하나라도 더 남의 것을 제치고 내 것을 팔겠다는 쟁탈과 경쟁이 극에 달해서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장 급한것이 자기나라 실업자를 구제하고 자기나라 산업을 살리는 일이다보니 남의나라 물건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수입을 규제하는 정도가 자꾸심해진다. 그같은 규제를 당한 나라는 혜여나 질세라, 이에는 이요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보복조치를 취하기 십상이다.

소위 友邦이라고 하는 나라들 간에도 문제가 경제에 이르면 서로 대문에 빗장을 지르는듯한 형국을 자주 연출하는것이다. 실제로 겪어보면 말도 못할 정도로 각박한 세계시장의 형편을 감안한다면 保護貿易主義니 무역장벽이니 하는 용어는 별로 현실감이 없는 말같다.

작년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팔고 사고하는 교역량 자체가 제자리걸음을 했으니 그런속에서 우리가 수출액을 쑥쑥 늘려나간다는 일은 참으로 뜻같지 않던 것이다.

요는 세계경제의 겨울잠이 너무 길어서 큰 일이다.

눈을 앞으로 돌려보더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않다고 생각된다. 우리라고 딴나라는 생각하지도 못할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며, 과거 60년대나 70년대의 개발시대처럼 높은 성장을 하고있는 것도 아니다. 벌써 몇년째 여느 나라들과 같은어려움을 겪고있는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는 과거 수십년 간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고 하겠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제질서의 모습은 만성적으로 악순환하던 인플레의 고삐를 잡는데서부터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해방이후 거의 해마다 치솟는 물가속에서 「고통」을 당해왔고, 물가불안이 곧 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체험해온 우리로서는 작금의 물가안정을 통해서 경제의 새 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게 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가지, 수치상의 안정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고무적인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민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의 성숙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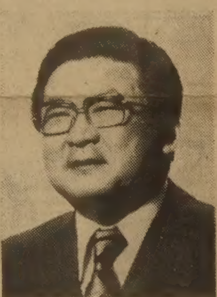
경제란는 것이 특정한 사람이나 하나의 經濟主體의 힘만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굴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결 밝다. 오늘날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일에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해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심화되고 있음을 여러 가지측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경제에 관한 의식의 성숙과, 성숙된 의식의 동시적인 구현은 지금 우리나라의 時代精神인 先進祖國의 창조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지도 모른다.

불에 달군 무쇠는 다시 찬 물에 담갔다가 꺼내야 더 단단해지는 것 처럼 지금 우리 경제는 담금질의 과정 속에 있는 셈이다.

지금 국민경제의 모든 주체들이 내가 내 몫을 다하기만 한다면 전체가 잘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같은 자신감을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확산시켜나가면서 서로간의 조화를 이루어나간다면 우리 경제의 봄은 결코 멀리 있지않다고 생각된다.

경제의 봄은 기다린다고만 해서 오는 것은 아닐 터이다.



「위기」는 위험도 있지만 機會도…

金宇中 <大宇그룹 會長>

지난해 한·일경협관계로 일본에 갔을 때다. 일본 경제인·기업인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일본측의 조선회장이, 한·일경협이 이루어지면 한국은 그돈으로 조선소를 지어 자기들과 경쟁하게 될텐데 그렇지않아도 조선수주경쟁에서 번번이 일본이 패하는판에 앞으론 더욱 불리해지므로 곤란하다는 말을했다.

그때 나는, 지금까지 한국이 선진국의 기술협력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으로부터 기술협력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 미국·유럽의 선진제국과 기술협력을 맺고 우리 돈으로 해외연수를 시키고, 우리 힘으로 기술축적을 이뤄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한·일경협자금으로 조선소를지어일본과경쟁한다니무슨소리냐고반박했다.

결국 이문제는 일본 경제인들이 한국의 조선소를 한번 보기나하고 얘기하자는 결론을 얻어 지난11월에 다녀가기까지 했는데, 우리나라 조선소를 돌아본다음의그들은내말에수긍하는것같았다.

요즘 경제환경이 어렵다고들 곧잘 말한다. 그첫번째 요인으로 침체된 세계경기를 들먹인다. 나도 그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사실 해외시장을 돌아보면 죽느냐,사느냐의 극한상황을 느낄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정말 무서운적은 우리들자신안에 있다는것을 느끼게되는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자신이 가지고있는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바로 자신감의 상실인 것이다.

자원이 빈곤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질이좋은 자원이 있다면 그것은 인력, 곧 두뇌라고 할수있다.

얼마전에 나는 우리 대우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화력발전소 수주건때문에 나이지리아에 갔던 일이 있다. 거기에서 세계유수의 엔지니어들과함께 화력발전소의 설계에서부터 가동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브리핑해내는 것을보고나자신도 적이 놀랐다. 그 자리에 있었던 유럽의 엔지니어들도 나중에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완벽한만큼훌륭하다고칭찬했다.

그런데 오랜 경험을 쌓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엔지니어, 비즈니스맨들이 아직도 선진국에 뒤지고 있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시장경쟁에서, 특히 선진국과의 시장경쟁에서 주눅이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말은 곧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것을 설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어째서 똑같은 능력이 아프리카에서는 다 발휘되는데 선진국에 가면 그렇지 못하다는 말인가. 이런 자신감의 상실은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나 도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것이다.

일에 대한 정열이나 자신감의 상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고, 죄악인 것이다.

작년 연말, 기업에 대한 사회적비판아 높아가고 있을 무렵 나는 해외 출장중이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역사적으로 사회에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당시의 기업인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도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이전에 부의 창출 자체가 국민전체에 기여하지 못하고 개인의 소유를 늘리는데 그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이 적어도 196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사고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기업의 규모가 커져 개인의 소유라는 영역에서 이미 떠나 기업의 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을 의미하기때문이다.

요즘 다시 기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것은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있는기업, 기업인이 상황이 어렵다고해서 그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려는 자세에 대한 채찍질로 받아들여진다. 기업이나 기업인의 도전 포기는 곧 국가경제발전의 포기와 같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다.

우리가 10억불을 해냈을 때는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하나뿐이었지만 지금은 그 의지 위에 경험을 보태고, 기술혁신과 생산성향상에 힘을 쏟으면 이 어려운 상황은 극복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업에게 합리적경영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소비로 저축을 늘리고,정부에게는 일관된 정책운용을 기대한는심위업체의 노력이 뒤따라야만 될 것이다.

나는 우리 대우 가족들과 얘기할 때 경기를 탓하면서 수출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한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 1%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경기의 영향도 1%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조그마한 경기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만큼 도전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흔히 오늘날의 상황을 「위기」로 표현하는데 나는 위기라는 말에는 위험도 있지만 기회도 있다는 말로 나름대로 풀이한다. 모험없는 성공이 있을수없는것을 나는 믿기때문이다.

나는 작년 한햇동안 2백89일을 해외현장에서 보냈다. 그중에는 내 생일은 물론 아내의 생일도, 아이들의 생일도 있었다. 수백㎞씩 떨어져 있는 사막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뜨거운 태양아래 땀흘리며 일하는 우리 사람들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게 여겨지면서도 안타까운 마음 또한 어쩌는 수 없었다.

무엇을 위해 저토록 땀 흘리는가. 무엇을 바라고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일하는가. 저들이 가장 소원하고 갖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두말할것도 없이 아내가 보고싶고 자식이 귀엽고 부모 형제의 안부가 궁금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 절실한 소망이 있는데도, 오늘이 아닌 내일, 그들 혼자가 아닌 가족의 평안과 안락한 삶을 위해 땀으로 인내를 기르는 것이다.

19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불황이라던 1、2차오일쇼크를 우리는 현명하게 대처해왔다. 그런데 지금와서 상황이 어렵다고 내던질을 멈추고 좌절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그때도 우리는 가진 것 없이 시작했고, 자원이라고는 지금처럼 「사람」뿐이었다. 오히려 지금이 그때보다 더 나은 상황이라고까지 말하고 싶다.

역사는 소수에의해 형성되어간다는말은 사실인것같다. 우리의 오늘을 더 좋은 미래로 연결시키기 위해 이제부터는 교육받아 선택된 소수의 희생이 필연적인것같다.

우리나라가 부를창출하기위해 지켜져야할 수단은 교역밖에 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무역이다. 건설이다 하는 개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해외로 뻗어가야한다는 총체적인 의미에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된 소수들이 해외로 나가 먼저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길에는 모험이 따르고,그 길은 외롭고 쓸쓸하다 해도 숙명으로 감수해야 한다.

올해도 내년에도, 나는 가족들과 함께 생일을 보낸다고 아내에게 약속할 수가 없다.

기업경영은 「成果만족」…最善뿐

梁正模 <國際그룹 會長>

해마다 새해 아침이면 으레 해 보는 「다짐」 같은것이 누구에게나 있을것이다. 대체로 「새해에는 더욱 보람되고 보다 의미가있는한해가 되도록 하자」는 엇비슷한 다짐으로 일관하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성취의지가 듬뿍 담긴 새로운 포부에 가슴이 부풀게 된다.

개인이건 조직이건 살아움직이는 모든현상은 그 존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어떤가치를 갖고 있게 마련이며 무엇때문에 일을하며 또 이 일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추구하는 최종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뚜렷한 확신을 갖고자 하기 때문이다.

새해 아침의 이런 다짐은 앞으로의 1년에 대한 목표의 확인이자 또 이를 달성하고자하는 의지의 표상이기도 하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다. 올 새해 아침에도, 그동안 경영일선에서 느껴왔던 몇가지의 생각을 정리한 일이 焦眉之事가 되었다.

지난해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경기회복이 기대대로되지는 못했다. 그런만큼 기업의 몸살도 심했다.

국내경제는 각종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실질적인 구매력이나 투자활동이 활발치못했다. 수출역시 선진제국의 수입규제 강화와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이 기업경영의 저해와 장애요소로 작용했던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어려움 때문에, 반대로 값진 소득이 된 면도 없지않았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따라 기업 스스로 불황에대한 적응력을 기른것이란든가 한걸음 더 나아가 생산성향상등 脫不況의 능동적인 노력, 減量경영 체제로의 전환등 불황을 이겨내려는 기업의 自救를 위한 이같은 몸부림은 큰 수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기업환경이 달라짐에 따른 기업인의 경영인식변화를 크게 특징지는다면 확대 위주의 경영보다는 二步前進을위한 一步後退로의 전환을 들수 있다.

과도한 신규투자 보다는 더다듬고 또 새로이 바꾸어보고 한편으로는 먼 앞을 내다보는 눈(眼)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필연적으로 기술집약형의 해외건설의 육성과수출시장의 다변화를 가속화시킨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내적 성과로는 품질관리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들수있다. 勞使가 한덩어리가 되어 품질관리의 정착화를 추진했었고 提案制度를 도입하여 기업내부의 문제해결을위한커뮤니케이션을 보다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기업은 곧 인재」라는 인식을 하나의 구체화된 목표로서 접근시켜놓기도 했다.

물론, 기업의 내실안정을위한 이와같은 노력의 이면에는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물가안정을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 또 이에 적극 협조해준 국민의 안정의 지향을 들수있다.

더군다나 더욱 값진것은신발하나, 기계부품 하나에도 온갖정성을 다기울여준 현장종업원들의 남다른 책임감과「자부심」이었고, 이는곧 우리모두의 밝은 미래에대한 약속이기도했다.

올해는 전에 없는 기대감같은 것이 있다. 세계적인불황여파로 워낙 움츠려져 있기만했던 요 몇년, 올해는 기지개도 펴고 새로운 전진을 기약해야되겠다는 성취의욕이 크게 작용한 것이겠지만 근년에없던 기대심리가 높아졌기때문이리라.

국제경기가 호전되어 국내경제도 보다 활황을 맞고,많은 사람들이 두루 만족하는 한해가 꼭 돼야 하겠다는 기대감, 이것은 비단 기업인만의 소망은 아닌 것이다.

올해 역시 국내외 경기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못하다. 따라서 기업의 경제여건도 크게 호전될것 같지는않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비교적 낙관적으로볼수있는몇가지의징후들이있다.

부분적이기는 하나 우리의 주시장인 美國의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고있고 프라임 레이트의 하락과 이들 시장의재고소진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대가 기대된다는점을 들수있다.

더우기 지난해와같이 올해도 국내물가는 계속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따라서 실질소득도 늘어날것이고, 소비자의 구매력도 향상될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되면 그동안 위축되었던기업의 설비투자도 되살아날것이며 국내경기는 서서히 회복 국면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기업인으로서 볼때 이러한 요소들은 확실히 올해의 호재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들 호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또 개개 기업이 갖고있는 특성과 어떻게 조화를 시켜나갈 것인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합리경영을 통한안정 성장」을 올해 나의 경영기본 목표로 삼을 생각이다.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원가관리, 다각적 시장개척, 과감한 기술혁신의 세가지를 중점전략으로 펴나갈 생각이다.

판매는 어느 의미에서 경영의 시작이라고 할수있으며 이익창출의 원천이 되기도 하므로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신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판매활동 기능을 강화하고전사원의 판매요원화등총력을기울일 생각이다.

더우기 기술혁신이 없이는 제조원가의 절감과 품질개선은 물론 나아가서는 시장의확보도 어려울 것이며, 동시에기업에 있어서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생각이며 설비개체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조직원의 합리적인 사고가 선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불황을 호황으로 탈바꿈시키는지혜, 이것은 결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종업원이 한덩어리가 되어 지혜를 짜내고 힘을 모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그 에너지를 응집시킬 때라야만 불황극복의 지혜가 창출되는것이다.

30년간의 기업경륜을 통해얻은 확실한 신념이 있다면 어떤경우에도 반드시 응분의 댓가가 돌아온다는 점이다.

오늘날과 같이 예측불허의 경제기류에서 기업경영은 성과만족이 있을수없다.이같은 여건아래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한걸음 한걸음 성실하게,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적극적인 생활인으로서 삶을 꾸며나갈 계획이다.

기업활동의 목적은 단순히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한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목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사회적 기반의조성에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개인이나조직이 스스로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召命意識이나 自己確認意識을 사명감이라 전제할 때, 불황을 탓하기보다는 「불황은 호황을위한 찬스」로 잡는 긍정적이고도 능동적인 자세를 오늘을 사는 지혜로 삼고싶다.

「不況과민」도 「好況過信」도 금물

李東燦 <코오롱그룹 會長>

우리들은 자신도 깨닫지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불황이라는 단어에 상당히익숙해졌다. 너무나도 빈번히들려오고 걸핏하면 거론의 대상이되는 이단어가 갖는 파급효과로 인하여,여유가있고 풍성해야만될 우리들의내면세계마저도 불황이 스며들어와 삭막해진 느낌이 든다.

거리를 나다니는 사람들을바라다 보노라면 웃음띤 얼굴이나 환한 표정의 얼굴 보다는 심각한 혹은 지친 얼굴을 더많이 발견하게된다.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어느덧 쉽게 치유될수 없는「불황 노이로제」에 걸린 重症의 환자가 되어 있는 것이나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근래 세계경제는 불황 자체였다. 실업과 공장폐쇄·도산은 최근 몇년간 세계적 일반현상으로 고착된 느낌이다. 그런데 한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오늘날 세계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불황의원인을 둘러싸고 각국들은 서로 그 책임의 소재를 자체내에서 찾기보다는 외부로 그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공업국들은 그들대로「産油國을 비롯한 자원보유국의 횡포와 저임의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덤핑을 일삼는 後發開途國들의 몰상식(?) 때문에 자기들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고 불평한다.

한편 後發開途國들은 그들 나름대로 과거 帝國主義時代의 환영에 선진공업국들이 아직도 몰두어 있는것이 아닌가 의혹의 눈초리를 돌리면서, 선진공업국들이 개발원조에 인색한점과 自國산업보호를위해 쌓아올린 높은 관세 장벽에 칼을 빼고있다.

이렇게 볼때 우리 한국경제가 처해있는 상황은 더욱 복합적이다. 60~70년대의 고도성장을 토대로 중진국의 대열에 가까스로 뛰어든 한국은 양면의 적을 맞이하고 있다.

즉 선진공업국의 보호무역 장벽과 첨단기술개발에 의한 강력한 경쟁력, 中共을 비롯한 後發開途國의 상대적인 저임에 바탕한 노동집약적 산업에 의한 추격등 8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은 양면의 적을 막아내기 위해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 있는것이다.

특히 10억인구의 풍부한 노동력에 기초한 中共의 존재는 한국기업들에게 위협적인 것이다. 섬유산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면화생산 세계3위,면제품 수출세계1위인 中共의 잠재적인 성장력은 결코 경시할수 없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에게 어려운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자원, 기술, 자본등 경제활동의 기본적 요소라 할수있는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 쇼크가 한 차례씩 불어닥칠 때마다 한국경제의 모든부문에 그 파급효과가 미쳐, 경제가 전반적으로 동요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한편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미세한 변화에도 신경을 날카로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80년대의 한국경제 전망이 결코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지난 82년도 선진공업국들의 GNP성장률과 한국의 그것을 비교해보자. 한때 라인江의 기적을 이뤘다는 서독이 2.5%의 마이너스성장률을, 英國이 제로성장률을 기록, 西歐 선진공업국의 GNP 평균성장률은 겨우 0.5%로 평가되고있다. 더우기 세계경제의 주역을 담당하는 美國은 마이너스1.5%의 저조한 성장률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비하여 자본·자원·기술과 수출등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경제가 82년도에 6%의 GNP성장률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당히 고무적인것으로받아들여야한다고생각된다.

물론 이 6%라는 수치가 60~70년대의 20년간 한국이 이룩한 연평균9.6%의 고도성장에 비하면 낮은 성장률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幼年期에는 성장속도가 빠르지만 靑年期에는 그 속도가 둔화된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때, 과거에 누렸던 호황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차분한 자세로 80년대 우리한국경제가 제2의 도약을 이룩해나갈 참된 길을 모색해야만 될 것이다.

한 마디로 이제는 우리가 지나친「불황 노이로제」나 막연한 호황에 대한 꿈을 훌훌 떨쳐버려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금년에도 지난 몇년동안 우리를 괴롭혀 왔던 불황의 여파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공업국의 경우 물가상승률과 금리가 점차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지나친 축소지향적 경제정책과 관세 장벽에 의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외신에 비추어, 우리의 수출량도 다소 증가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따라서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하반기이후에는 우리 한국경제도 점차 경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다만 이러한 경기회복을 보다 알찬 성장의 계기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경기부양책을 실효화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면서, 한편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의지를 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민간기업은 기술혁신만이 80년대의 냉엄한 국제경쟁사회에서 생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임을 자각하고 이에대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술혁신이란 단순한 기술개발만을 뜻하는 것이아니라 제품·공정·관리기술의 개발을 망라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제시장정보의 정확한 수집, 연구기술의 생산으로의 연결, 신품목의 마키팅 활동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혁신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한 기능부문이나 한 계층에서 이루어질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가적으로는 官과 民,勞와 使의 만남, 기업으로서는 전기능부문과 각계층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합심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셋째, 우리국민의 의식혁명이 또한중요하다고 본다. 모든 국민들이 우리 한국경제가 제2의 도약을 이룩할때에 후손들에게 풍요를 물려줄수 있다는 사명감을 뚜렷이 자각한다면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수 있을 것이다.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고임금 재원의 확보에 노력하고, 국민화합을 위해 학력간 임금 격차해소에 힘써야 할 것이다.

기업가와 근로자가 각기 이같은 자세를 유지할 때 비로소 인정과 신의에 바탕한 협력적 勞使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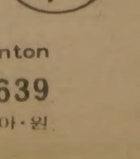
우리민족은 전통적으로 돼지를복(福)스러운 동물로 여겨왔다. 이제 癸亥年 돼지 해를 맞아,한국경제가「不況의 노이로제」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위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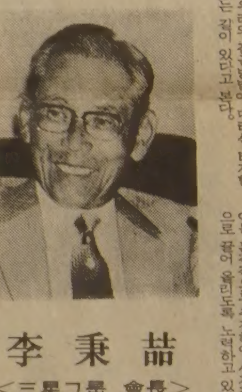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쉬비아·원

한국일보 (특집판)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企業總帥들의 待春賦

<總帥이름 가나다順>

貿易立國은 尖端기술이 活路



李秉喆
<三星그룹 會長>

우리는 좁은 국토위에 4천만의 인구가 몰려있다. 국토의 4분의3이 산지여서 평지의 인구밀도로 치면 세계최고이다.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것이다. 그렇다고 해외로 해외로 뻗을 영토도 없다. 어떻든 협소한 국토 위에서 4천만의 인구가 생활을 영위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며 또 후손들위해 國富를 축적하지 않으면 안된다.

山紫水明한 錦繡江山이라 하나 특별한 자원이 없다. 석유, 석탄, 우라늄, 목재 어느것 하나 풍족치 못하다.

이런 자연적 조건에서 우리의선택은 貿易立國하나밖에 없다. 해외에서 싼원료를 들여다가 가공하여 비싸게 팔아야 하는것이다. 다행히 우리에겐 교육받고 근면한 양질의 인적자원이있다. 그동안의 개발전략도 이 인적자원을 활용한貿易立國이었다.

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우리는 거의황무지에서 왕복 5백억달러의 무역고를 쌓아 올렸다. 염가품의 대량수출로 고도성장을 할수 있었고 이것이 1인당GNP 1천7백달러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그것이 벽에 부딪쳤다. 세계적 장기불황과 보호주의 팽배로 염가품의 대량수출에 의한 무역입국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존전략에 대한 위협이다. 세계적 불황과 보호주의는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내가 최근의 經濟難局을 심각히 인식하고 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해도 우리가 극복못할 정도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길게 볼때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한어려움을 무수히 극복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5천년의 긴 역사동안 단일민족, 단일언어를 면면히 이어왔고, 숱한 외침을 받으면서도 自主獨立을 유지했다.

가까이만 보더라도 한국동란의 전재속에서 급속한 경제재건을 했으며, 그야말로 맨주먹에서 출발하여 10여년만에 先發開途國으로 올라섰다. 우리 민족의 강인한 정신과 근면, 창조성만 잘 발휘해 간다면 작금의 經濟難局은 충분히 타개하고 제2의 도약을 할수 있다고 확신한다.

문제는 새로운 貿易立國의 전략을 어디에 둘 것이며 우리의 잠재에너지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폭발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 세계는 큰 변혁기를 맞고 있다. 국제분업체제나 신용, 무역질서뿐 아니라 생산, 유통, 소비형태까지도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새로운 貿易立國도 이러한 거대한 세계적 조류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범세계적인 산업구조의 일대재편이 이루어 지고 있다.

전후 산업을 주도했던 섬유, 철강, 조선, 석유화학, 기계등은 斜陽이 진행되고있는 대신 반도체, 컴퓨터, 생명공학등이 각광을 받으며 급속히 성장하고있는것이다. 작년에 내가 美國에 여행하면서, 또 금년에 日本에 가서 느낀것은 이런 변화가 굉장히 빠른 템포와 광범한 폭으로 밀어닥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산업들은 모두 첨단기술과 혁신적 생산시스템을 근간으로한다. 원료가 적게 들면서도 값비싼 高附加價値 상품을 만들거나, 획기적으로 원가를 낮출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개발하지 않고는 앞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것을 실감했다.

우리의 貿易立國 전략도 바로 거기에 맞추어야 한다. 貿易立國은 화해와 공존공영에 바탕을 두어야한다.

지금 세계각국이 생산제한이나 시설감축을 하고있는 마당에 우리만 일방적으로 수출을 늘려갈수는없는 일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니 특별배려를해달라는 것도 한계에 있다.

무자원 반도인 우리의 자연적 조건에 맞으면서 상대방에게도 필요한제품을 갖아야한다. 이것이 곧 高附加價値, 高기술商品 즉 첨단기술상품이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할일은 눈부신 기술혁신의 조류속에서 우리의 적성품목을 찾아내고 활용하는 것이다.

자원이 유한한만큼 모든것을 다하려 해서는 안된다. 최근 국내기업들이 첨단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반도체나 컴퓨터, 생명공학등 첨단산업 분야는 세계시장이 무한히 넓은만큼 국내경쟁의 차원을 떠나서 다같이 뻗어나갈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노하우」를 상호 교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물론 첨단산업이 쉽게 이루어 진다고 생각지 않는다.

美·日이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을 따라 가려면 무척 힘들 것이다. 그러나 선진기술을 과감히 도입하는 방법을 찾고 국내의 우수한 두뇌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기술이전도 보호장벽이 높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적극방법에 따라선 타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다.

이것은 내가 美國과 日本의 재계지도자들을 만나보고 얻은 결론이다. 오히려 국내 수용태세의 미비가 더 큰 문제라 생각된다.

요는 기술혁신의 큰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전략투구의 대응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三星은 일찍부터 반도체, 컴퓨터, 생명공학등 첨단산업을 일으키고 자동화등으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지만 금년은 이를 더욱 가속화 할 계획이며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반도체, 컴퓨터, 생명공학 분야에서 국제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것이다. 三星이 반도체사업에 착수한지 10여년이 넘지만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반도체등 첨단산업은 자금, 기술면에서 막대한 투자와 장구한 시일을 요하는 만큼 거족적인 비상한 각오와 관민일체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나로서는 三星,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貿易立國의 활로를 튼다는 각오아래 반도체등 첨단기술의 개발에 전력투구할 생각이다. 첨단산업외의 분야에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시설투자나 합리화 투자에 주력하여 생산코스트를 낮추도록 할 것이다.

원가절감이 있어야 수출을 늘릴수 있고, 또 가격을 내려 인플레도 퇴치할수 있다.

기술혁신으로 원가가 싸져, 기업이윤을 내면서도 가격을 인하할수 있어야 진정한 물가안정이 되는 것이다.

인플레 퇴치는 구호보다 기술혁신의 결과이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구조나 수익상황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형편인데 이를 개선하는 방법도 역시 기술혁신에 의한 원가절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三星은 오래전부터 기술혁신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최근 일부 제품가를 내릴수 있었는데 그 효과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더욱 주력할 것이다.

움츠러들지말고 擴大均衡을

鄭周永
<現代그룹 會長>

해마다 연초라면 눈덮인 동해안에서 산과 一望無際로 뻗은 해안에 잠시 심신을 의탁하는 忙中閑의 여유를 생각하게 된다.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한해의 농사를 끝내고 피땀어린 볏단을 이고 누워 있는 논두렁을 보며 한없이 흐뭇한 정서에 젖기도 하고, 한굽이 돌때마다 야트막한 골짜기안에 「어이」하면 금시 친구가 나타날듯한, 옹기종기 모인 산간동네에서 무심코 고향을 본다는것은 무엇과도 바꿀수없는 悅樂이다.

그러나 어제일을 거의 오늘 되돌려볼 틈도 없는 것이 요즘 일상이고 보면 짬을 낼수도 없거니와 무슨 감상에 젖어 자기 내면을 들여다 본다는것이 도시 사치스럽게만 느껴진다.

나는 가끔 내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동분서주한다고 생각 한다면 나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자문해본다. 우리가 직장에서 월급을 타건 자기사업을 경영하건 혹은 공무에 종사하건 간에 자기가 월급이나 이익만을 바라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진다면 그것보다 비참한일은 없을 것이다.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고 또 크건 작건 그 성취에서 인생의 의미를 느낄때만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끝없는 성취,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자기확인의 길이며 여기서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있을것이다.

금년에는 참 할일이 많다. 우선 올림픽과 아시아대회를 준비하는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경제도어려움이 계속될 전망이고 보면 회사일에 매달려야 하는 시간도 많아져야 할것 같다. 요즘 우리 경제를보면 세기적인 국제경제의 불황으로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중에도 많은 처방이 나왔고 그것이 또 그런대로 효과를 거두면서 우리가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수있다는 자신을 확실하게 해주었다.

나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성실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세계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10년안에 적어도 日本을 능가하지는 못해도 쫓아갈수는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기업의 매출목표나 고용목표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꼭 달성하자고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現代가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회사, 깨끗한 회사가 되자는 목표이다. 우리가 정직하게 거래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경영감각이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유례없는 불경기속에서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감당할 도리가 없게 되었다.

최근 1·2년간 우리는 해외건설이나 조선등 중공업제품의 국제입찰을 하면서 다른나라 기업들의 강력한 경쟁력에 부닥친 경우가 수없이 많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일이 우리 차례에 오지 않을것이라는 위기의식마저 종종 느꼈다.

이같은 격심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기업과 생산공장이 心機一轉하여 혁신적인 생산코스트를 창출해내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생산성 향상의 올바른 첫출발은 무엇보다 부정과 부조리를 우리 주변에서 털어내는데 있으며 原價절감의 가장 확실한 방법 역시 무사와 안일을 배격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확실히 무사와 안일, 부정과 온갖 부조리가 제거되어야만 진정한 和合이 가능해지고 또 그속에서 모든 창의가 꽃필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60년대 70년대의 우리 기업이 외형적인 성장에 몰두하였다면 80년대의 우리 기업은 특히 의식적인 면에서부터 모든 기업경영의 내적인 충실을 도모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거기에 올바로 적응하는 것은 기업전략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 日本의 모 중공업그룹이 이른바 「沈下」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다.

전자산업등 첨단산업쪽을 게을리해서 타사에 크게 뒤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첨단산업을 남보다 앞서 시작해야 겠다거나 혹은 경영쇄신에 역점을 둬서 그 회사의 경우를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기업전략으로 무엇보다 東南亞를 중심으로한 環太平洋圈에 역점을 둘 생각이다.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활기가 넘치는 곳은 그래도 아시아-태평양뿐이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진국의 경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선진각국이 나름대로 사정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세계적인 규모로 有效需要가 창출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러나 한두 나라에 세계의 富가 크게 편재되면서 특히 非産油開途國이 오늘날처럼 累積債務로 허덕여 가지고는 선진국인들 벌 수가 없을 것이다.

요즘 브란트위원회에서는 세계경제, 특히 경제를 실제로 움직여 나가는 금융의 위기에 크게 주목하면서 선진국들은 후진국 가운데 最貧國에 대해서는 채권을 전부 포기하고 이들을 포함한 모든 후진국의 경제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적으로 有效需要 창출에 진력해야 할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실제로 1차대전후 승전국들이 패전국에 너무 과도한 배상금을 지운 것이 곧바로 세계경제에 큰타격이 되었고 따라서 이것을 탕감해 주었던 예가 있다. 70년대이후 오일머니를 둘러싸고 전개된 경제전략에서의 결과가 오늘의 세계경제의 파행, 왜곡이라고 본다면 선진국에서 이들 일부 最貧國의 채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겠다. 더구나 그것이 바로 선진국 자신들이 살길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보호무역에 대해서도 IMF 등 선진국 국제기구나 대학등에서조차 그것이 선진국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심심찮게 나와서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무역자체의 비교우위라는 점에서 숫자로서 분명하게 나오거니와 당해선진국의 산업재편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대중영합책일수는 있어도 어느 면에서나 건전한 국가시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세계경제의 안정·발전을 위해서는 브란트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확대균형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그렇지 않고 당면한 自國경제의 보호에만 급급한 나머지 무역을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이 계속 움츠러들기만 한다면 세계경제는 지난 몇년간 그래왔던것처럼 악순환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오늘날 세계는 확실히 침체를 떨치고 일어나는 확대균형의 길이 요구되고 있거니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야말로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볼때 우리의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가 확대균형이라는 올바른 발전방향을 가능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것이라고 모두 기대하게 된다.

생각하며 飛躍하는 前進을

趙重勳
<韓進그룹 會長>

올해는 癸亥年으로 돼지띠의 해이다. 특히 올해는 멧돼지의 해라고한다. 「猪突」이라고 하는 단어도 멧돼지가 일단 하나의 목표가 설정되면 이눈치 저눈치 두리번거리지 않고 일직선으로 돌진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니 금년은 그렇게 보내야 하는가하고 비약도해보게된다.

그러나 그보다더 마음을끄는것은 어떤 「整理」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지금은 서양식인 세기라는 개념으로 백년의 세월을 한단위로 묶고있지만 동양문화권에서는 甲子 乙丑으로 시작하여 癸亥까지의 六十甲子를 한 묶음으로 삼지 않았던가? 올해가 바로 그六十甲子의 끝인 癸亥年이라 생각하니 불현듯 지난날을 반추하여 뒤돌아보고 싶은 느낌을갖게 되는 것이다.

지나온세월동안 양 또는 질적으로 훨씬 적은것을 이룬 사람은 좌절과 실의로 빠져들 것이고, 많은 것을 얻은 이는 자만에 휩싸이고, 安分之足을 아는 사람은 세월만큼 얻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보다 미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좌절보다 희망을, 자만보다 겸손을, 현실에의 안주보다 시련을 각오한 전진을 차라리 선택하게 되는 것이리라.

어머니가 주신 동전 서너닢을 들고 친구들과 자하문밖 자두밭을 드나들던 추억, 열서너살 무렵 어린 가슴을 온통사로잡았던 「바이런」 같은 시인이 되고싶었던 꿈이며, 동남아를 취항하는 화물선에 승선하여 들러 보았던 上海와 홍콩의 거리풍경, 그 번화한 상가와 中國人의 독특한 상술을 목격하고 사업가로 성공해보겠다는 굳은 결심, 고국에 돌아와 25세때 남을 모방치 않고 독창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관을 설정했던 일이며, 6·25로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철저한 신용과 배짱으로 30대에 세워일으킨 仁川 미군수물자 수송 용역사업, 40대때 戰場의 살벌함을 무릅쓰고 프런티어 정신에 입각해 외화획득의 숨막힌 드라마를 연출했던 越南진출, KAL인수 당시의 숱한 망설임을 「國家가 있고 사업이 있다」는 하나의 사명감으로 적자기업을 떠맡았던 장50代때 사업가로서의 번민, 그리고 기업경영과는 또 다른 육영사업의 어려움등…

그런가운데서도 나는 육영사업에 커다란 그리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있다. 仁荷學院이나 靜石學院을 맡아 이끌어가는 것도 이러한 관심의 조그마한결실이었지만, 얼마만큼을 이루었으며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두고봐야 알것같다.

그러나 어쨌든, 젊은 「인재」의 육성을 위한 조건없는 투자는 번영된 조국의 장래를 기대하는 우리의 꿈과 목표달성을위한 큰길중의 하나라고믿는다.

지금껏 기업을 경영해 오면서 「사업은 종합예술」이라는 신념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해왔다. 예술성이 높은 불후의 작품은 조화 속에서 창조된 美와 순수한 작가정신을 감동스럽게 전달할수 있어야한다. 그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을까. 시대에 뒤떨어져 남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성과 진실성이 짙은 창조정신으로 사업에 임해야 비로소 그 경영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다.

1년의 반을 해외에서 뛰며 그 중 상당한 시간을 창공을 날며, 나는 늘 국가와 민족에 누를 끼치지 않는 「거짓없는 기업경영인」이 되자는 다짐을 해왔다. 바다를 누비고, 하이웨이를 달리고, 「날개」라는「나라의 큰 일」을맡고 하늘을 날아야 하는 것이 韓進그룹의소임이기 때문이다.

기업이란 혼자 이루는 것이아니고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최고경영자라고 해서 경영의독점자일 수는 없는 것. 하나의 목표를향한 전체사원들의 의욕을 돋우며 함께뛰는 것이 곧 경영인이다.

때문에 안으로는 모든 구성원과 호흡을 같이하며 노사협조와 복지증진을 이룩해야하고, 밖으로는 한국의날개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태극마크를단 KAL기가 세계 곳곳에서 따뜻한 고향처럼느껴지도록 세심한 정성을 쏟아야 한다.

기업의 적자나 흑자는 사업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때로는 벌고 때로는 밑지기도한다.

지난 80, 81년 2년간 KAL은 큰 적자를 보았지만 우리 그룹 종합체제의 뒷받침과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감원이나 감축없이 82년에는 흑자로 반전시켰고 여전히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1달러를 더 벌기 위해서 1백달러를 쓰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것이 오늘날국제항공업계의 경쟁 양상이다.

이러한 경쟁속에서 세계의 유력항공사들과 힘겨운 싸움을 치러야 하는것도 우리가 겪어야할 순탄치 않은 역경중의 하나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우리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한 극진한 정성이 필요불가결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치열을 극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한국 유일의 국제항공사라는 이유때문에 「독점 운운」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씁쓸하고일면 쓸쓸한마음금할수없다.

그럴 때 나는 조국산천 아름다운 마을어귀마다 긴세월을 우뚝서 바람을 담담히 받으며 묵묵히 서있을뿐인 느티나무 팽나무를 생각한다.

또한 세월을 생각한다. 바다와 하늘을 생각한다. 그것들은 모든것을 덮고 모든 것을 포용한다. 그리고 나는 「고요한 돌(靜石)처럼」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간다.

세월이 계속 지나간다는 것은, 곧 세월이 계속 남아있다는 것을 뜻한다. 溫故知新하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세월의 흐름은 곧발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정월 초하룻날 차례를 지낸 후 中東行 KAL기에 몸을 담았다. 越南상공과 인도양을 지날 때 나는 여러가지 상념에 잠겼다. 40代 나이때 정열을 불태웠던 越南, 그러나 지금은 亡國의 恨이 가득 차 있을 뿐…. 제3세계의 주역인 印度, 그리고 간디, 네루, 타고르…. 이윽고 10여시간의 비행끝에 검붉은 황토가 불타는 역사의 현장 中東에 도착했을 때, 나는 현실을 직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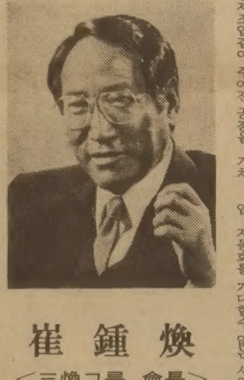
걸프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

가변적인 세계경제와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83년에는 우리가 생존키 위해 의식구조의 혁신, 기술혁신등을 그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게 추진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선진국은 이미 컴퓨터의 第4時代, 즉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대로 돌입하였다.

귀국길에 포킷용 컴퓨터를 눌러 보았다. 나는 『올해도 바쁜 해로구나! 무엇을 「인·풋」 시킬 것인가?』고 자문해 본다.

우선 멧돼지의 해라고 하니 저돌적인 돌진도 해야 되겠지만 돌진만한다고 세상일이 다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리라. 돌진에 앞서 생각하고 행동에 앞서 또한번 생각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해보며 귀국길에 올랐다.

「中東熱氣」는 결코 식지않는다



崔鍾煥
<三煥그룹 會長>

강산이 변할만큼의 긴 시간이 숨가쁘게 지나갔다. 그동안 우리 건설업이 세계를 무대로 보여준 놀라운 기량과 성장에대해서 비록 건설인이 아니라하더라도 우리 국민이라면 한번쯤 찬사를보낸 기억이있을 것이다. 그만큼 긴시간이 흘렀고 큰 변화를 보인게 우리 건설업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한번 업다해볼 가치가 있을만큼 우리경제와 생활에 깊은 인상과 영향을 끼친것도 사실이다.

우리건설업의 中東 10년을 돌이켜음미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나의 치기도 아니요, 감상은 더더욱 아니다. 차라리 가슴 깊은 곳에서 분연히 분출해 올라오는 건설인으로서의 감회와 또다른 의지와 열정으로 이해해 주어야 할것이다. 이것은 「中東建設 10년」을 일으키고 일구어온 당사자가 갖는 솔직한 나의 심중이자 고백이기 때문이다.

中東진출이 처음 이루어졌던 1973년은 우리의 경제도, 경기도 「오일 파동」에 휘말려 엄청난 몸살을 할 때였고 건설업 또한 침체의 늪에서 허위적거리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다.

이같은 어려운 경제환경속에서 최초의 한국인으로서, 내가 불모의 땅, 사우디반도에 첫발을 내딛기까지 겪은 수난과 고통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생생하기만 하다. 이경험은 어느 한기업, 개인의 영광이요 자랑이기전에 우리 민족정신의 승리이자, 민족의지의 개가이기에 더더욱 소중스럽다.

옛말에 「飮水思源」이란 말이 있다. 우물에 물을 마시기 전에 우물을 판 사람들의 땀을 기억하자는 뜻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경제가 짧은 연륜으로도 괄목할 만한 경제부흥을 이룩했고 또 균형이룬 국민경제생활을 누리고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같은 옛말이 떠올려지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건설업은 국민경제발전에 기름진 토양을 제공해왔다는 점에서 차제에 건설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새로와져야겠고 또 새롭게 평가되어야 겠다고 생각한다.

이럼으로써 이 순간에도 열사와 적도하 정글 속에서 땀흘려 수고하는 18만 해외건설가족에게 위안이 되고 또 사기를 앙양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할수만 있다면 우리국민 모두에게 사막과 정글을 땀으로 일구는 해외건설현장을 보여주고 싶다. 그만큼 해외의 현장은 감동을 주기때문이다.

中東건설진출전인 71년까지만해도 우리의 해외건설계약고 누계가 1억6천5백여만달러에 불과했으며 진출지역도 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빈약했던것이, 中東진출이후인 75년에는 15억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템포는 계속되어져 77년 75억달러, 78년 1백56억달러, 다시 79년엔 2백20억달러로 올라섰고 80년엔 급기야 3백억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면서 점차 中東건설시장의 장래를 우려하는 시선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지만 지난해 건설계약고는 계속 늘어나 마침내 5백억달러선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쌓음으로써 경이적인 성장을 이룬 대표적 산업으로 계속 관심을 모아온 것이다.

中東하면 이젠 모르는이가 없지만 카이바고속도로를 기억하는 사람은 흔치가 않다. 中東에서의 한국공사 제1호가 바로 이 도로공사였기 때문에 한번쯤 이 첫 공사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번영이 「88올림픽」 유치로 상징되어 진다면 카이바道路는 88올림픽을 뚫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카이바도로는 중동건설 경기를 일으킨 기폭제란 점에서도 중시되겠지만 그보다도 그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내기까지의 눈물겨운 과정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숱한 애환과 절규가 쏟아진 가운데 준공된공사가 바로 카이바 고속도로였다. 미지의 땅에 도전한 개척자로서 필연적으로 겪을수밖에 없는 시련과 고투는 심지어 우리가 상상키 힘든 용수부문에서 조차 적자가 85만달러에 이르렀다는 데서 좋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 2천4백만달러 공사에서 당초 계상한 10%이익은 커녕 6백만달러의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적자를 내고 말았다. 그 뼈아픈 교훈이 후발진출업체에 얼마만한 도움이 됐던가를 생각하면 되레 자랑 스럽다.

그 때의 경험, 쌓은 정신력과 의지가 훗날 성실한 한국인, 부지런한 한국인으로 명성을 오늘에 까지 떨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엄청난 손해를 보았지만 우리는 지지 않았다. 물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사막과의 투쟁에서도 승리했다. 그 엄청난 실의와 좌절속에서도 지난해 사막에 쏟아진 폭우를 눈여겨 봤다가 다음해 그곳에 대형 물구덩이를 파 다시 쏟아진 물줄기를 그대로 공사용수에 사용, 25만달러를 벌어들인 것은 우리가 이룬 역사이자 신화요, 장거인 것이다.

건설업만큼 불확실한 것은 없다. 한마디로 건설업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조형화시키는 산업』이다. 일반제조업같이 주어진 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도 없다. 성실과 신용만으로 「네고」하고 無에서 有를 창조해 내는게 건설업의 본질임을 이해해야할 것이다.

또 한가지 건설업이 어렵다는것은 불행하게도 건설은 「오토메이션」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해도 제조업 같은 생산의 자동화내지 기계화시스팀을 기대하기 어렵다. 모든게 사람의 손과 마음이 합쳐져서정성으로 완성되는 것이 곧 건설인 것이다. 그래서 이같은 無에서 출발하는 사업, 자동화를 기대할수 없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확인·점검>을 최우선의 경영시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中東진출 10년에 대한 감회로 친다면 나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주위의 만류와 경시를 뿌리치고 서류가방 하나 챙기어 불모의 땅 사우디를 들락일 때부터 나는 中東건설경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 건설장관이 다섯분 바뀌었고 심각한 中東政情의 변화등 돌이켜보면 지난 10년은 변화무쌍한 것이었다.

현재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中東경기가 몇년이 다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가 않다. 나의 소신은 10년전에 밝힌바 그대로 中東경기는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단 한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는것을 선행시켜놓은 다음의 결론이 그렇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어려워질수록 그만큼 더 노력해서 그들이 필요로하는 자질과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또 나갈것이다. 中東지역에서만 만족을찾을수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금년한해는 더없이 바빠질게 틀림없다. 그것이 아프리카가될지, 中南美가될지, 미국본토가될지, 아직은속단키어려우나 나는 틀림없이 제2의 中東을 세계어디선가 일구어 내고자 계속노력할것이다. 그러나 건설제품이 어느 하나 같은게없듯이 中東같은 시장은 없을게 분명하다.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진미
한국요리의 정통을 이어
한국적인 멋이 가득한
●토론토의 명물

한국관

＊돐잔치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
등 각종 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대표 나 옥녀
628 BLOOR ST. WEST, TORONTO
☎ 531-0277

스페샬
3월말까지 (단 : 토·일요일은 제외)
짜장면 $3.25
곰 탕 $3.25
냉 면 $3.25
비빔밥 $4.00
육개장 $4.00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전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여 200석 와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금: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숭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RASCO 냉동 -★에어콘, 히팅, 워킹쿨러, 후리저,
Washers, Dryers, Stoves등등 시설·판매수리.
전화: 439-0047 Mr. 최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이삿짐센타

이사하실 분은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전화 : 533-9233 Mr. 유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 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귀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한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자동차 수리 (파타임)
수리 일체에 관한 일
전화 : 291-4547 Mr. 윤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광고문의 533-2361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불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식자 기술을 배우실 분.
◉본사서 유급 훈련함.
◉Full Time or Part Time
◉영문타자 능숙자 우대.
전화 : 533-2361 한국일보사(Mrs. 강)

입주하셔서 가사 돌보아 주실 할머님 구함.
Jane & Lawrence 지역.
전화: 244-2301(오전7시-저녁7시 사이)

Multi-Million달라 Herbal 화장품회사에서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쎄일즈 하실 분을 구합니다.
◉안정성있고, ◉자신의 비지네스고,
◉수입이 좋은 회사에서 트레인을 시킴.
전 화 : 364-8932

도넛숍 여자 캐쉬어 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2-0634 Mrs. 김

스토아 파타임 남자헬퍼 구함.
낮에 일할 분.
전화 : 488-1634 (저녁 6시 이후)

출퇴근하며 유치원다니는 남아(5세) 돌보실 할머니 구함.
시간 : 11시~오후5시까지(주중만)
전화 : 487-8665 (오후4시 이후)

풀타임, 가발 만드실분 구함.
다운타운 위치, 커다란 가발회사
남자 가발 만드는데도 경험이 있어야 함.
색갈도 들여야 하고 가발 바느질 잘해야함.
영어를 할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함.
전화 : 977-1122 Mr. SCIARA

3살, 4살된 두아이 봐주실분 구함.
Jane × Eglinton 근방
전화 : 247-0643 Mrs. 하

자동차 세일즈맨 구함.
다운타운에 있는 커다란 General Motors 차딜러에서 새차 쎄일즈맨 구함.
회사차와 의료보험및 여러가지 혜택이 있음. 유경험자 원함. 전화: 964-3211 Mr. M. Tubby

경험있는 재봉사 구함.
가죽자켓과 핸드백 만드는곳(내방 바람)
Wolff of Canada(68 Broadview Ave. 2nd Fl.)

작은 버라이어티 가게와 방5개 달린 건물.
이 두 건물을 맡아서 운영하실분 구함.
20년된 가게이고, 운영부진으로 주매상 $3,000.
스카보로 지역, 학교와 아파트 동네.
약간의 보증금. 현재 여자 혼자 운영 가능함.
전화: 266-7958(오후12시 이후)

4 Bed Rm 타운하우스에서 같이 지낼 독신 여자분 구함.
Hwy 401 × 빅토리아파크. 월: $170.-
전화 : 449-1913 Mrs. 채

맥스 밀크에서 일할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
저녁에 일함.
전화 : 221-9051

KOREAN UNIVERSITY STUDENT

Graduates or near graduate person are required to represent an international Canadian company on Korea. Must have a high level of energy and dedication and be specializing in Business and Commerce.

There will be an intensive training program in Toronto and will in future be promoted to a technical representative in Korea. An attractive renumeration package in U.S. Dollars is available to the successful candidate. Mr.Sciara 977-1122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숭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669-5517 Mrs. 리 (Steeles & Bathurst))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광고문의 533-2361

매 매

아담하게 꾸며진 미용실이 딸린 3층건물 팝니다.
서브웨이에서 1 Block
전화: 463-7423(B), 461-3363(R)

레스토랑 매매
전화: 251-1423(오후7시 이후~10시까지 Mr. 이)

헐리우드 복덕방 리스팅
◉2층 4베드룸, 부엌 2개, 목욕탕 4개, 차고 2개
넓은 파킹 Lot.(로얄욕×에그린톤)
전화: 746-4360 JOE DI LILLO
◉Fast Food 비즈네스 달린 빌딩(영×리치몬드)
비즈네스와 부동산 $550,000 또는 비즈네스 $200,000+스탁+렌트
전화 : 746-4360 Joe Tanzos
◉Gift Shop(캐나다스 원더랜드 근방 플라자내)
아스킹 : $22,900 전화 : 746-4360 Mr. TANZOS
Hollywood Real Estate Ltd.

1)Bloor St. 써브웨이 코너
8층+1 사무실 붙어있고+아파트. $850,000
아스킹: $200,000 다운
2)11개 스토아 플라자. $107,000 net net annual income
3)스토아+Gas Bar. 1.3에이커. $370,000. 25% 다운.
Doris Burda 763-5555 Cholkan Real Estate Ltd.

레스토랑과 타번 매매
Burlington 다운타운에 있는 좋은 자리. 리스: 17년 6,000 Sq. Ft. 전화: 823-6984 Louis Battista

▲모텔: 나이야가라 지역. 13 Units.
35 Units 과 237 의자있는 타번.
49 Units-높은 소득. 135 Units-좋은 장래.
▲타번: 400 의자-높은 인컴. 110 의자-좋은 지역.
Century 21. Darel Properties Inc. Member Broker.
Niagara Falls, Ont. 전화: (416)356-2121

여자용 옷 가게하시는 분에게 각종 여자 부라우스, 스웨터, 드레스및 진 등 아주 싼 가격으로 양도코자 함.
전화: 967-4461 Mr. 용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3447 St. Clair Ave. E.(at Birchmount)
전화: 265-9000

에드몬톤에 있는 주유소 급매.
정비공장 가스스테이숀, 자동차 Part Shop, 토잉설비
Asking: $125,000(설비+Part+토잉트럭 완전포함)
연 Net Income: 7만불
연락처: 1-403-475-9613, 1-403-475-1631 Mr. 박
(Collect Call도 무방함)

Smoke + Gift 가게 팝니다.-벌링턴지역
◉$400,000 Turn over/연매상
◉7년리스 $1,100/월렌트.
◉Asking: $81,900
Many Extra Income, Lottery Video
581 Brant St. 전화: 1-637-2609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3 Pcs. Wall Unit. $199
2)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거울달린 화장대 $79
4)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5 pcs. Kitchen set(식탁 + 4개의 의자) $89
6)소파 4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한국일보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칩(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가게(800 Sq.Ft. 월 450 / 렌트) 같이 쓰실분 구함.
Wilson + Dufferin 지역.
전화: 635-7154 Mrs. 김

1 Bed Rm. 아파트 렌트.
Sheppard & Birchmount. 독신녀에 한함. 월 / $125.
전화: 292-5280(오후3시반 이후) Mrs. 유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Bloor & Kennedy 꽃집
결혼, 개업용 화환및 Plant
2194 Bloor St. W. 전화 : 766-0175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 (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전화 :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헌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입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퍼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ㅇ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방실 있음.
ㅇ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 김